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의 허락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대한제국 마지막 액션 팩션 스토리(Faction Story)”

# 대 접

## <소재>

신문물이 밀려오던 20세기 초, 낡은 퇴물로 취급 받으며 쫓겨난 대한제국 무인들의 눈물겨운 좌충우돌 생존기.

## <등장인물>

### 임 호(25)- 택견고수.

시원한 발따귀 한방으로 사무라이들의 아구창을 날려버림으로써 황성신민들의 답답한 속을 확 풀리게 한 대한제국의 영웅이자 마지막 자존심!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동무 전선출이 만들어낸 구라였으니.. 인왕산 호랑이로 불리며 어릴 적부터 택견판을 주름잡았던 그였지만 이제 망해가는 조국도, 무인들간의 불꽃튀는 대결도 모두 시시할 뿐이다. 매국노란 소리까지 들으며 헌병대대위에게 일부러 저주는 것도, 눈썰사나운 사무라이들의 행패를 뚱고 찌릿하게 참아내는 것도.. 오직 신문물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번듯한 직업을 갖고 싶은 열망 때문이다. 황성시내를 대낮처럼 밝히는 전깃불에 매료된 임호는 대한제국에서 최고의 하이테크놀러지 잡이라 할 수 있는 전기가설원을 꿈꾸는데.. 자신을 옹주마마라고 떠들며 황실어전무술대회에 나갈 것을 중용하는 덕혜를 만나자 하나씩 일이 틀어지기 시작한다. 가뜰이나 주먹이 근질근질한데.. 이 여자 자꾸 싸움질을 부추긴다. 눈물이 핑 돌만큼 주먹질 안 하기로 발길질 안하기로, 그렇게 잘 참고 있는데 왜 이녀의 가슴에 태풍을 일으키난 말이다! 말아쥔 주먹에 불끈 힘이 들어간다. 날 좀 제발 가만 놔두란 말이야~~~!!!

### 덕 혜(18)- 대한제국 마지막 옹주.

고종황제의 금지옥엽 하나밖에 없는 옹주지만.. 성격 한번 칼칼하다. 남자로 태어났으면 능히 독립투사로 만주에서 총 쏘고 말 좀 달렸을 여장부. 밤마다 월담을 하여 궁을 빠져나가서는 만민공동회장에서 민심을 살핀다. 을사늑약을 강요하는 이토에 맞서 황실무술대회를 열 것을 약속한다. 대신 조약의 불모로 대마도주와의 혼약을 위해 일본으로 가야할 운명에 처하게 된다. 망해가는 대한제국을 위해 나서주는 무인들이 없자 입소문으로만 떠돌던 전설의 택견고수 임호선생을 찾아 종로 육의전으로 숨어든다. 고종황제의 국새로 인해 이토가 보낸 닌자들의 추격을 받게 되고.. 천신만고 끝에 만나게 된 임호선생은.. 자신의 생각과는 완전 판판이다. 오히려 매국노 같은 모습을 보이는 그를 어떻게든 무술대회에 나가게 하려고 안달을 떠난다. 이 늑아~! 그 바윗덩이 같은 주먹을 썩혀서 뭐할 것이냐!

### 우치베(28)- 일본 헌병대 대위.

대대로 사무라이집안에서 자란 정통 무인. 어릴 적부터 검술과 가라데에 능한 무술고수으로써 일본열도에서 세손가락에 꼽히는 무인이다. 무도인으로써 살고 싶었지만

명치유신 때 관료들에 의해 숙청당한 아버지의 이력이 족쇄처럼 따라다닌다.  
결국 군복을 입고 을사늑약의 조약성사를 위해 경운궁을 점령한 헌병대를 인솔하고 있다. 아라사와의 치열한 전투에서 살아남았지만 친동생 같던 유키를 자신의 손으로 벨 수밖에 없었던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 군에 대한 회의와 순수한 무인간의 대결조차 술수를 쓰려는 이토에 대한 반감으로 군복을 벗는다. 군인이라기보다는 전형적인 무도인이다.

**마루야마(28)- 통감부 경시.**

진고개에 설치될 통감부 경시로 발령을 받고 동경에서 건너온 유도왕. 천황무술대회에서 4연패를 한 유도왕답게 무인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간다. 죽은 동생 유키에 대한 복수를 위해 이토와 조건을 달고 그의 집행관 역할을 수행한다. 우치베의 목숨을 노리면서도 동생에 대한 죄책감에 그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 토(50)- 일본전권대사.**

을사늑약의 강제체결을 위해 일본에서 파견되었다. 군부의 견제를 받고 있지만 높은 여우로 불릴 만큼 신중하다. 마루야마를 앞세워 하나씩 대한제국의 무인들을 제거해 나간다. 덕혜옹주가 숨긴 국새를 찾아내기 위해 혈안이 된다.

**전 선 출(25)- 임호 동무.**

전직 전기수(글을 모르는 이들을 위해 책을 읽어주고 돈을 받는 직업)였으나 화려한 입담이 너무 지나쳐 개박살이 난 후, 사람들에게 임호의 무용담을 과장해서 부풀리며 엽전 몇 푼이나 챙기는 신세. 신문물이라는 임호의 말에 콧방귀 쏘지만 생전 처음 본 흑백영화와 입 하나로 좌중의 마음을 쥐었다 폈다 하는 변사에 뺨 가버린다.

**박 무 경(25)- 임호 동무.**

**춘 봉(52)- 임호 아버지.**

**덕 구(11)- 애기 택견 수련생.**

그 외

민영환, 김구, 털보, 장칼, 무장1,2,

고종, 지선, 장상궁, 관리원, 득만, 만덕, 야마다, 하야시,

하세가와, 사무라이들, 닌자들, 이완용.

## <줄거리>

**“을사늑약! 조국의 자존심이 무너지던 날,  
마지막 황실어진 무술대회가 열린다.”**

을사늑약 일주일 전, 덕혜옹주는 이토히로부미와 대한제국의 자존심을 건 황실어진 무술대회를 열 것을 약속한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무인들은 몸을 사리고, 설상가상으로 이토가 보낸 자객들에 의해 아랫대 택견꾼들이 처참하게 독살 당하자 평민 복색으로 변장한 옹주가 전설의 택견꾼 임호를 찾아 종로육의전으로 숨어든다.

그러나, 조국에 대한 애국심은커녕 매국노 같은 모습을 보이는 임호를 보고 망연자실하고.. 덕혜를 궁에서 도망친 수라간 무수리정도로 알고 있던 임호는 그녀가 계속 무술대회에 나갈 것을 종용하자 화를 내며 내쫓는데.. 애정인지 애증인지 모를 관계가 지속되면서 둘의 가슴에 사랑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한다.

이토는 을사늑약 조약서에 필요한 고종황제의 국새를 덕혜옹주가 궁 밖으로 가져간 것을 눈치 채고 난자들을 시켜 그녀의 행방을 뒤쫓는다.

이토가 자객을 보내 무술대회에 나오는 대한제국의 무인들을 제거한 것을 안 헌병대 대위 우치베는 이토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진해서 군복을 벗는다. 그 사이 그에게 동생의 복수를 하기 위해 유도왕 마루야마 경시가 동경에서 건너온다.

이토는 마루야마를 통해 임호와 우치베를 제거하고 덕혜옹주가 숨긴 국새를 빼앗아 오려고 하는데..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자 을사오적을 제외한 대신들을 무참하게 도륙한다.

결국, 을사늑약이 맺어지던 날, 조약의 불모로 일본 땅에 끌려가게 된 덕혜옹주는 마지막 무술대회가 열리는 유각골 안터바닥에 도착하는데.. 11월의 칼바람만 불뿐 일제의 서슬 퍼런 기세에 아무도 나타나는 이가 없었으니, 그럴 줄 알았다는 이토의 빈정거림을 뒤로 한 채 덕혜옹주 눈물을 삼키며 마차에 오르는데..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풍물소리. 서서히 구름처럼 몰려들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모습. 마차에 오르던 옹주의 눈이 빛나기 시작한다.

과연 인왕산 호랑이 임호는 조국의 마지막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황실어진 무술대회에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

## 1. 종로 육의전- 석양

1905년 초겨울의 종로통.

문이 모두 닫힌 채 썰렁한 기운이 감도는 육의전 거리.

군홧발 소리, 위압적으로 고조되고..

한 무리의 일본헌병대가 완전무장을 한 채 지나간다.

푸줏간에서 빠꼼히 고개를 내미는 덕구. 인적은커녕 황량한 바람만 분다.

그럴줄 알았다는 듯 고개를 꼭 숙이며 들어가는데.. 아이의 눈이 커진다.

흰 저고리를 휘날리며 지나가는 누군가.

시장통 사람들 하나 둘 그의 뒤를 따른다. 점점 불어나는 사람들.

굵은 붓으로 억세게 써내린 타이틀 뜬다.

# “대 접”

## 2. 경운궁(덕수궁) 옹주 처소.

경첩속 무수리 복색의 덕혜가 머리를 다듬고 있다.

밖에서 군홧발 소리가 고조되자 덕혜의 눈망울이 흔들린다.

옹주복색의 지선이 덕혜에게 머리를 조아린다.

두 손으로 국새를 바치는 지선의 손이 떨리고 있다.

국새를 바라보는 덕혜의 얼굴에 잠시 망설임이 일렁인다.

그 위로 ‘임호’를 외치는 군중들의 목소리가 고조된다.

## 3. 종로 가라데 무도관 안

무도관 안과 밖을 빼곡히 메운 시장통 사람들.

새우젓 장사, 물동이 인 아낙네, 아이들... 모두 제각각이지만

한 목소리로 ‘임호!’를 외치고 있다. 마치 지금까지 쌓인 울분을

풀어달라는 듯... 그들을 겨우 막고 있는 순사들.

임호와 헌병대 우치베 대위가 서로 노려보고 있다. 숨막히는 둘의 정적.

사람들 숙연해진다. 서서히 임호가 몸을 앞뒤로 굴실거리며 품밟기를 한다.

생소한 모습에 잠시 낯을 잃은 우치베. 그 순간! 임호의 입에서 ‘이크’하는

소리와 동시에 우치베의 눈이 일순 커지며 번쩍! 그의 얼굴을 가격하는

전광석화 같은 발따귀(택견의 발질). 우치베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선다.

틈을 주지 않고 달려가 붕 날아오르는데.. 사람들 와~ 하는 소리. 일순 경악.  
우치베 임호의 모가지를 낚아채 바닥에 메다꽂는다.  
비틀거리며 일어나는 임호의 복부를 정권으로 내지르는 우치베.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비명소리.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는 박무경.  
우치베 임호의 가슴팍을 앞지르기로 내질러버린다.  
무도관 문이 와장창 깨지며 밖으로 튕겨져 나오는 임호.

#### 4. 무도관 밖

바닥에 처참하게 널브러진 임호.  
박무경과 전선출이 달려와 임호를 부축하자,  
군복상의를 걸치며 우치베가 밖으로 나온다.  
(참조- 이 영화에서 대부분의 일본인 역할은 조선말을 구사한다.  
간혹 나오는 일본말은 우리말 번역이 자막으로 깔린다)

우치베           (일어. 야마다에게) 아까 저자가 했던 것이 조선의 춤인가?  
야마다           춤이 아니라 택견이라는 전통무예입니다.  
우치베           택견?  
야마다           싸운다기보다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습죠.

우치베 말을 타고는 임호를 바라본다.  
둘의 날카로운 시선이 교차하는 가 싶더니  
이내 말머리를 돌리는 우치베, 헌병대가 그 뒤를 따른다.  
사람들의 얼굴에 한숨과 원망이 가득하다.  
덕구가 달려와 임호 품에 안긴다.

박무경           뭘 구경났어? 괜한 사람 부추길때는 언제고  
                    약값이라도 보태줘야 할거 아냐!

사람들 눈치를 보다 하나 둘 사라진다.

#### 5. 경운궁 대안문(대한문) 앞

수문장 복장의 춘봉이 월도에 기대 졸고 있다.  
그때 늙은 시위대 무관들이 황급히 도망치며 지나가자,  
춘봉 득만을 붙들며

춘봉                    아니? 무신 난리라도 났는 가?

득만    겁에 질린 눈빛으로 한쪽을 가리키면  
춘봉도 기겁을 하며 얼굴이 사색이 된다.

잠시 후, 개미새끼도 보이지 않는 대안문 앞은  
시위대 무관들이 버리고 간 낡은 무기들만 떨어져 있다.  
착검을 한 총을 들고 곧 전투라도 벌일 듯 위협적인 기세의  
헌병대가 말을 탄 우치베를 좇아 대안문으로 서슴없이 입성한다.  
모퉁이에서 숨어 이 모습을 훑쳐보고 있는 늙은 시위대 무관들.

춘봉                    (월도를 잡으며) 저! 도둑놈들이 제 집 드나들 듯이 하네 그려!

득만                    아서시게.

춘봉                    시위대 체면이 말이 아니어서 하는 말일세.

득만                    괜히 그 놈에 녹슨 칼 들고 춤추다가  
저 놈들 육혈포 앞에서 벌통 되기 딱 십상이지.

춘봉                    울화통이 터져서 이거야 원...

득만                    아라사 놈들도 두발 두손 다 들었다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아 어디가나?

춘봉    풀이 죽은 채 발길을 돌린다.

득만                    젠장. 그러세. 가서 탁주나 빠세.

## 6. 파고다 팔각정(만민공동회장)- 밤

인산인해로 물려 있는 군중들.  
사람들속에 장옷을 쓴 덕혜가 보인다.  
빨데안경의 김구가 연단 위로 올라온다.  
군중들 소란스럽다.

김구                    (버럭) 야이 조선의 매국노들야!!

소란스럽던 군중들 일순 조용해지면서 험악해진다.

인파1                  너 이놈! 어디서 굴러먹던 개뻥다귀 인지는 모르겠으나  
나라가 망한다고 예의범절까지 함께 망했단 말이냐!

김구            나는 황해도에서 온 김구라고 하올시다!

인파2          네 놈이 장안에 굴러다니는 개똥 말똥 소똥이라 한들 우린  
관심없다. 아까 내 지른 욕지거리부터 사과하거라!

김구            나는 바른 말을 했을 뿐이요.

인파1    날선 도끼를 가슴팍에서 꺼내들고 연단위로 뛰쳐올라온다.

인파1          바른 말이라?

김구            그렇소! 내 눈엔 모두 입만 산 겁쟁이들로 보이오!

인파1          이놈 봐라!

도끼로 연단을 내리찍는다.  
일순 긴장감이 감돈다.

인파1          이것은 나라팔아 먹은 학부대신 이완용의 목을 치기 위해  
가져 온 것인데 이제 보니 주인이 따로 있었구나!

인파2          이보시오! 저놈이 바로 완용이의 첩자일 수도 있소!

군중속에서 죽여라! 죽여라! 터져나온다.  
덕혜의 눈빛이 빛난다.

인파1          바른대로 이실직고하지 않으면 네 놈 목부터 날아갈 게야!

김구            맞소이다. 나는 첩자요! 아니 나라팔아 먹은 장본인이요!

군중            (웅성거린다)

김구            진고개에 주둔해 있는 왜놈의 군대가 황성시내를 확보하고, 목멱산에  
설치된 포대가 궁을 향해 포문을 열었소!  
헌병대가 폐하가 계신 경운궁을 휘젓고 다니는데도 여기서 입만  
나불거리고 있으니 내가 바로 매국노요! 내 목을 치시오!

인파1          ... (미안한듯) 그만 하게.

김구            지금 남도에선 의병들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소이다.

인파1          우리도 알고 있네. 왕산 허위 선생께서 13도의 의병들을  
규합해서 곧 이곳 황성으로 진격해 온다는 소문에 이렇게 모두  
모인 것이 아닌가?

김구            (도끼를 뽑아들며) 아까 이 도끼는 누구의 목을 친다 하였소?

인파1          ... 이완용의...

김구            아니요! 이 도끼가 먼저 쳐야할 목은 바로 우리의 목이요!  
사법권조차 그들손에 넘어간 마당에 이 말도 안 되는 조약으로



외교권 마저 잃는다면 대한제국은 망한 것이요!  
자! 대안문으로 가 이 도끼로 군주폐하를 지켜드립니다!

장내 술렁인다. 서로 눈치만 보며 나서질 않는다.  
덕혜 그런 군중들의 모습을 보자 얼굴이 어두워진다.  
김구 한숨을 쉬며 눈을 감는다.

## 7. 동. 팔각정 앞

회합이 끝난 듯 사람들 하나둘 흩어진다.  
김구 풀이 죽은 채 그 모습을 보고 있다.

덕혜            신민들은 모두 말만 앞섰지 행동은 없는 겁쟁이들이지요.  
김구            ...  
전선출(소리)   여보시오! 임호선생께서 왜놈을 또 메다꽃아버리셨소!!

돌아보면 한쪽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전선출.  
사람들 삼삼오오 모여 얘기를 듣고 있다.

전선출        (전단을 흔들며) 종로 육의전에서 우리의 임호선생께서 왜놈의  
                 모가지를 꺾어냈다고 하오. 거구의 헌병대 대위를 그냥 땅바닥에  
                 메다꽃고는 발로 밟아서! (땅바닥을 질근질근 밟으면 사람들 통쾌한  
                 듯 열쭉~, 잘한다..박수치며 호응)  
김구            겁쟁이는 백성들이 아니라 군주폐하시지요.  
덕혜            그 무슨 무뢰한 말이오!  
김구            군주폐하께서 백성들을 믿지 않는데 폐하를 위해 죽어줄  
                 신민이 어디있겠습니까?  
전선출        아실랑가 모르겠네! 왕십리 살곳이 다리에서 청나라 무인들 수십명  
                 과 대접을 벌였던 그 전설같은 무용담을 말일세.  
김구            황성시내에 전기가 들어오고 화통과 전차가 제 힘으로 달리는  
                 모습에 모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폐하께서 혼란스러워 하는  
                 그들을 이끌어주지 못한다면...  
전선출        이번엔 거구의 사무라이가 휘두른 칼을 두동강 내고 맨손으로  
                 왜놈을 때려잡았으니 오호라! 군주폐하께서도 못한 대한제국의  
                 자존심을 지켰구나! 자! 인왕산 호랑이 임호선생의 전설같은  
                 이야기를 장안의 최고 입담꾼인 이 전선출이 전하노니 귀를 쫑긋  
                 세우고 똥꼬에 힘을 꼭 쥌채 이녁의 얘기에 집중하시오!

김구               ... 다른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겠지요.  
상처받은 백성들의 자존심을 어루만져주고 하나로 뭉치게 해 줄 수  
있는 상징적인 인물! 인왕산 호랑이라.. 허허..

전선출을 보는 덕혜의 눈빛이 매서워진다.

## 8. 인왕산 감투 바위 앞

망을 보던 덕구 사람들 틈새로 들어가 살펴보면

전선출(소리)   전광석화 같은 발길! 우치베 대위의 가슴팍에 꽂힙니다.

우치베가 아니라 털보의 가슴에 꽂히는 임호의 발길질.

제대로 맞았는지 폴짝 주저 앉는다.

구경꾼 사이로 임호에게 진 택견꾼들이 주저 앉아있다.

박무경           왕십리 털보, 살꼬지 신재영, 누상동 장칼, 구리개 김홍식.  
그리고... 에..

전선출           더 볼 거 뭐 있어. 아랫대 놈들 나올만 한 놈들 다 나왔구만.

박무경           그렇지? 올해에도 윗대의 임호장사가!

임호             잠깐!

박무경           ?

임호             윗대 아랫대 모든 장사들께 할말이 있소.

난 이제.. 대접을 접겠소.

사람들 임호의 말에 웅성거린다.

임호             택견판에는 나오지 않을거요.

대보름이든 단오든 윗대를 대표해서 나서는 일은 없소.

털보             무신 말이여? 사람을 요리코름 반 빙신을 만들어 놓고선..

장칼             .. 갑자기 왜 그러는젠가?

임호             나라에서 무술수련을 금하지 않았소.

털보             그건 왜놈들이 모략질을 해서 그런 것이고

우리가 언제부터 그놈들 말을 따박따박 들었어?

장칼             윗대에서 임호가 빠지면 더 이상 택견판을 열 이유가 없지 않나?

임호             난 두 말 하는 사람 아니요.

털보             (시비조) 아까 육의전에선 왜 그런겨? 이렇게 발질이 살아있는데..

임호            뛰는 놈이 있으면 나는 놈도 있는 법.  
 털보            (먹살 움켜쥐며) 그걸 우리보고 믿으라는 겨?  
                   그러.. 네놈도 이젠 왜놈들 비위나 맞추며 슬슬 살겠다 이거지?  
 임호            맘대로 생각하게.  
 털보            (불끈) 그전에 내 주먹맛부터 보고 가라 이?

털보 임호 아구창을 멕이려는데 덕구가 달려오며

덕구            떴어요! 떴어!

산비탈 밑에서 순사들이 횃불을 들고 올라오고 있다.  
 다들 택견꾼들이라 그런지 비호처럼 사라진다.

## 9. 동. 감투바위 위

군데 군데 움푹 패인 감투바위.  
 짚신 신은 발을 그곳에 대며 발질을 수련중인 덕구.  
 그 모습을 물끄러미 보고 있는 임호.

박무경        택견꾼이 대접을 앓겠다니..  
 전선출        (침 뱉으며) 염병. 품이라도 뵈으라 치면 저리 쌍심지 키고  
                   잡으러 다니니.. 나라꼴 참 잘 되어간다.  
 박무경        (임호보고) 답답하이. 무슨 계획이라도 있나?  
 임호        없네. 덕구야!  
 덕구        (돌아본다)  
 임호        그만 뵈거라.  
 덕구        ?

임호 뒷짐을 지고 어두운 황성시내를 내려다본다.  
 하나 둘 전깃불이 들어온다. 종로를 흰하게 밝히는 전등들.

전선출        저.. 저런... 불이났나 보네.  
 박무경        허참. 작은 불은 아닌가보우. 온통 불천지여.  
 임호        답답한 사람들. 이렇게 신문물에 어두워서야.

임호 바지를 꺼내려 전깃불이 들어온  
 황성시내를 향해 오줌을 갈긴다.

임호            어허~ 시원타..  
박무경        뭐.. 뭐하나?  
임호            불끄는 걸세.  
전선출        (따라서 옷을 까고는 오줌발을 갈긴다)  
박무경        허참 이 사람들 체신 머리없이..(슬그머니 옷을 깐다)

## 10. 노량진 역사

환하게 역사를 밝히고 있는 전등.  
헌병대가 완전무장을 한 채 양쪽으로 도열해 있다.  
일본군 사령관 하세가와 대장과 하야시 일본공사, 이완용등  
주요요인들이 경직된 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우치베        (일어) 정렬!

우치베의 신호에 군인들 절도있게 총검을 착!착!착!  
코트를 걸친 이토히로부미가 부관들과 나타난다.

우치베        (절도있게 경례한다. 일어) 제7헌병대 우치베 대위 보고드립니다.  
바로 전투에 투입할 수 있도록 경성 시내 모든 병력을 완전무장 시키  
고 즉각 출동 태세를...

이토            (손을 들어 말을 막는다) 하야시 공사.  
하야시        (고개를 숙이며) 먼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토            본국에서 이미 내 지시사항을 전달받지 않았나?  
하야시        네. 받았습니다. 혹시 언짢으신 일이라도...  
하세가와      (일어. 눈치없이 끼어들며) 일단 숙소로 가시지요.  
                  각하가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경성시내 최고의 기생들을...  
이토            그런데 왜 하세가와 대장과 우치베 대위는 계속 본토 말을  
쓰고 있는 것이요. 하세가와 대장!

하세가와      (땀을 닦으며 경직돼서) 하이!  
이토            조선말을 할 줄 모르나!  
하세가와      아.. 압니다. 각하.  
이토            아직 조선반도가 우리 수중에 떨어진 것이 아니다.  
                  완전히 우리것이 될 때까지는 발톱을 숨기고 이빨을 감추어야 해.  
하세가와      하이!

하세가와 자신의 입을 막으며 안절부절.  
이토 한심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사라진다.

## 11. 역사 앞

이토를 태운 마차 출발한다.

하세가와        늙은 여우가 드디어 칼을 뽑아 들었군.  
우치베        (표정이 어두워진다)  
하세가와        바람이 거세면 일단 고개를 낮출 수밖에.

우치베 말을 타고 출발한다.

## 12. 달리는 마차 안

이토        (환한 전등이 비추는 시내를 보며) 그동안 많이 발전했어.  
              마치 동경에 있는 것 같군.  
하야시        각하의 지시대로입니다.  
              반도인들 모두 신문물에 넋이 빠져 있습니다.  
이토        그래야지. 그래야 우리 일이 더 수월해질테니까.  
              하야시 공사. 궁성으로 곧장 향하게!

이토가 탄 마차가 속력을 낸다.

## 13. 경운궁 궐내

어두운 궐내에 숨어드는 그림자.  
회랑을 빠르게 훑으며 지나가는 검은복면의 닌자들.

## 14. 동. 옹주 처소

어둠속에서 닌자들 조심스럽게 뭔가를 찾고 있다.  
일순 눈이 커지는 닌자우두머리.  
국새함을 발견하곤 조심스럽게 여는데... 비어있다.  
그때! 인기척. 닌자들 비호같이 옷장과 책상 밑으로 사라진다.  
문이 벌컥 열리며 책상 밑으로 숨는 누군가...

창호문 여기저기 불이 밝혀지며 사방에서 물려드는 상궁과 나인들.  
놀란 닌자들 눈알만 굴리는데... 장상궁 초롱불을 책상맡으로 들이대며

장상궁            취새끼가 어디 있단 말이나?  
닌자            (침을 꿀꺽)  
지선            (머리를 조아리며) 죽여주십시오.  
닌자            (품에서 날선 단도를 꺼내는데...)

바로 옆에 숨어 있던 덕혜가 밖으로 나온다.

덕혜            그만하시게. 지선인 아무 잘못도 없네.  
장상궁            (머리를 조아리며) 마마. 아무리 웅주마마라 하셔도  
                  궁밖 출입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군주폐하께서 금하신 일을...

내시들이 다급하게 다가와 장상궁에게 귓속말.  
덕혜의 얼굴이 어두워진다.

## 15. 중화전

내시들 한쪽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  
이토와 이완용이 똑바로 선 채 고종황제를 노려보고 있다.  
어좌에 앉아 추위에 몸을 떨고 있는 고종.

김내관            (망설이며 나선다) ... 학부대신. 이 무슨 무례요.  
                  외국사신이나 맞을 때 쓰는 이 큰 중화전에서 폐하를 알현하는 것은  
                  합당치 못합니다. 더구나 이곳은 난방조차...  
이완용            ...  
이토            (조약서를 펼쳐보며) 학부대신. 이상한 일이요.  
                  어째 군주폐하의 직인이 없지 않소.  
이완용            그게 저.. 폐하께서 자꾸 고집을...  
이토            모르셨는가? 폐하께서 외무대신 박제순에게 위임을 하셨네.  
                  안 그렇습니까? 폐하.  
고종            .. 위임은.. 당치도 않소..  
이토            ... (음산하게) 무엇을 믿고 그리 확언하십니까?

우치베가 이끄는 헌병대가 나타나 중화전 안을 신속하게 장악한다.

착검을 한 그들의 살기에 내시들 혼비백산해서 밖으로 도망친다.  
이토 눈짓을 주자 우치베가 칼집에 손을 댄다. 고종의 눈이 흔들린다.

덕혜(소리)      국새를 원하느냐!

## 16. 궁궐 모퉁이

춘봉과 시위대 무관들 벽에 기대 졸다가 벌떡 깬다.  
시종무관장 복색의 민영환이 칼을 차고 혈레벌떡 뛰어온다.

춘봉                (일어나 고개를 숙이며) 어이쿠. 나리.  
민영환            뗏들 하는 게야! 궁궐을 헌병대가 포위할 동안 왜 시종무관장인 내게  
연통을 주지않았느냐! 하마터면 날이 다새서 입궐할 뻔했구나.  
춘봉                그게 저..  
민영환            한시가 급하다. 추후에 너희놈들 죄는 다시 물을테니  
일단 창덕궁과 경복궁에 나가 있는 시위대 대대장들과 황성수비를  
맡고 있는 경비병들을 모두 이곳으로 집결시키거라.  
춘봉                했습니다요.  
민영환            훈련원에도 기별하였느냐?  
득만                답답하다. 답답해. 나리 이게 다요.  
                      요기 있는 늙은이들이 다란 말이요. 우리 빼고 어떤 골빈놈이  
지금 이 마당에 죽고 싶어 나서겠습니까?  
민영환            (보면 수십도 채 안 되는 늙은 시위대. 초라하다)  
춘봉                나리. 그냥 저희와 계시지요. 곧 날이 밝습니다.

## 17. 중화전

옹주 복색의 덕혜가 이토를 노려보고 있다.

이토                국새를 가지고 더 이상 장난은 그만 하시지요.  
덕혜                폐하께서 이미 조약을 거부하셨네.  
이토                옹주께선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소이다.  
                      우린 서구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조선을 보호하려는 겁니다.  
덕혜                닥쳐라! 대한제국엔 아직도 아버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신민들이  
남쳐나는데 너희놈들이 왜 우릴 보호한다는 게야!  
이토                힘이 있다. 조선에 정말 그런 힘이 있다?  
                      궁을 지키는 무장들조차 어디엔가 숨어 벌벌 떨고 있소이다.

우치베                    자신들의 왕을 버려둔 채 말입니다. 이것이 조선의 현실이요.  
(날선 칼을 들고 덕혜에게 다가가며) 처소로 돌아가시오.

그때 누군가의 칼이 우치베의 칼을 걷어낸다.  
보면 민영환이다. 우치베 잠시 뒤로 물러나는 가 싶더니  
민영환과 우치베의 검 날카롭게 부딪친다.  
검을 빠르게 주고 받는 두 사람. 바닥을 빠르게 훑는 발 움직임.  
우치베 스치는 가 싶더니 민영환의 가슴 옷깃을 베어버린다.  
뒤따라 들어오는 춘봉과 늙은 시위대 무관들을 조준하는 헌병대.  
일촉즉발의 상황.

이토                    그만!

민영환                이놈들! 각 궁에 나가 있는 시위대 대대장들과 황성수비를  
맡고 있는 경비병들이 곧 이곳으로 집결할 것이다!  
(춘봉에게) 훈련원 병력도 곧 도착한다 하였지?

춘봉                    예?... 아 예.. 곧...

민영환                그땐 차마 눈 뜨고 보지 못할 불상사가 일어날테니  
어서 물러가거라!

이토                    하하하!

조선의 시위대는 입으로 궁을 지키나 보구나.  
좋습니다. 조약은 옹주께서 숨겨둔 국새를 직접 가져올때까지  
잠시 미루어 두지요. 대신 조선이 자주적으로 자신의 나라를  
지킬 힘이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덕혜                    어떻게 그걸 보여준단 말인가!

이토                    학부대신. 조선시대부터 무인들이 임금 앞에서 무술시연을  
열었다고 하지 않았소?

이완용                그건 그런데... 이미 오래전에 그 명맥이 끊긴지라.

이토                    황실 어전 무술대회를 여는 겁니다.  
조선이 자신을 지킬 힘이 있다면 아마 많은 무인들이  
폐하를 위해 나서주겠지요.

민영환                마.. 마마. 아니 되웁니다!

이토                    대신! 일주일 후 옹주마마는 저와 함께 본국으로 가셔야 합니다.  
일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 천황폐하께서 본국과 조선의 굳건한  
동맹을 위해 대마도주와의 혼약을 고대하고 계십니다.

민영환                마마. 귀에 담지 마소서. 저들의 술책일뿐이웁니다.

덕혜                    ...



덕혜와 시선이 교차하자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짓는 이토. 덕혜의 얼굴이 굳어진다.  
문살 틈으로 하나 둘 등이 떠오르고.. 이토 피식 웃으며 발길을 돌린다.  
군인들 줄을 지어 뒤따르고... 우치베 나가며 민영환과 스친다.  
짧지만 강렬하게 서로의 시선이 교차한다.  
민영환 칼을 의지한 채 부복하며 절규한다.  
이토의 입가에 승자의 미소가... 갑자기 뒤에서 나는 덕혜의 목소리.

덕혜                    기꺼이... 그대의 제안을 받아주겠소.

이토 돌아보면 그를 노려보고 있는 덕혜옹주.

## 18. 시장통 푸줏간 앞

춘봉과 득만 앉아 탁주를 마시고 있다.  
덕구의 부모들이 갈고리에 매단 소를 손질하다가  
덕구가 동무와 애기택전을 하는 것을 보고는  
달려와 덕구를 나무라기 시작한다.  
둘다 병어리인 듯 손짓으로...

춘봉                    덕만이 이사람! 잘 노는 애한테 왜 그러?  
득만                    모르면 잠자코 있게나.  
                             요즘은 애기택전하는 아그들도 잡아간다네.  
춘봉                    이런 쟁쟁할... (탁주 벌컥) 나라꼴이 이래서야...

그때 야마다를 호위하는 사무라이들이 나타난다.  
한 무리의 일본상인들이 그 뒤를 따른다.

춘봉                    (벌떡 일어나며) 아니 저놈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하나둘 점포로 들어가더니 조선인들을 밖으로 내친다.  
시장통 여기저기서 다툼이 일어나지만 이내 사무라이들에게  
쫓겨나는 점주들. 춘봉 월도를 들고 달려나가려는데...  
임호가 이끄는 건장한 젊은 택전꾼들이 사무라이들을 막아선다.  
일렬로 대치한 두 패거리 사이에 전운이 감돈다.  
사무라이들 칼집에 손을 댄다. 택전꾼들 주먹을 움팡지게 쥐는데..

야마다 (땅바닥에 금화주머니를 던지며) 수고했네.  
임호 약조를 지킨다 하지 않았소.  
야마다 (비웃듯) 점포 주인들만 바뀌는 것이니 걱정마시게.

임호 뭔가 말하려다 억누르며 돌아서는데

야마다 정말 나와와 약조 때문에 저 준 겐가?  
임호 ... 말했듯이 돈은 필요없소.  
약조나 잘 지키시오.  
야마다 물론! 자네가 주먹을 쓰지 않는한  
마을 사람들은 육의전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겠지.

임호 돌아서 가는데..

야마다 (금화 주머니 보며) 그건 가져 가시게.  
임호 싫다 하지 않았소.  
야마다 난 사람의 신의는 믿지 않지만  
저건 철썩같이 믿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  
싫든 좋든 가져가게.  
임호 ...

전선출 임호 눈치를 보다 냉큼 금화 주머니를 챙긴다.  
그 모습을 멀리서 보고 있는 춘봉의 눈초리가 매서워진다.

## 19. 마상무예장

말을 타고 달리는 젊은 무장들.  
활을 쏘며 과녁을 맞춘다.

검을 휘둘러 대나무 말뚝을 베어버리는 무장1, 2.  
검을 주고 받으며 합을 겨루는 무인들.

## 20. 황학정

무장들 일렬로 서서 국궁을 하고 있다.

무장2 (활시위를 당기며) 무술대회가 열린다고 하더군.

무장1 (묵묵히 활만 쏜다)  
무장2 시종무관장이 우리들을 찾아다닌다고 하던데..  
무장1 (활시위 내리며) 더 이상 지껄이면 자넨 다신 안 보겠네.  
무장2 미안하이. 괜한 소리를 내가 했구먼.

민영환이 다가와 인사를 한다.

민영환 동무들 잘 있었는가?  
무장2 아니 시종무관장님이 아니십니까? 여긴 어인일로..  
민영환 같이 동거동락한 사이에 존대는 무슨.  
그래. 집에 없다하여 두 사람에게서 서찰을 남겼는데 보셨는가?  
무장1 (활시위만 당기며) 부질없는 짓 그만 하고 돌아가게.  
민영환 허.. 이 사람. 야박하이 그러. 직접 찾아온 사람 성의를...

무장1 갑자기 활시위를 영환에게 겨눈다.

무장2 이 사람 이게 무슨짓인가!  
민영환 아직도 내게 양금이 남았나 보군.  
무장1 양금? 양금이라 했는가!  
우리 동지들이 모두 초죽음이 되어 옥사에 갇힐 때  
말리지는 못할망정 앞장 섰던 게 네 놈이 아니었느냐!  
민영환 난 군주폐하의 뜻을 따랐을뿐이네.  
무장1 (금방이라도 쏠 듯) 나의 활시위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아느냐!  
무장2 이 사람들 이거! 오랜만에 만난 동무들끼리.. 이래서야..  
민영환 아무리 억울해도 군주폐하를 향할 수는 없는 것!  
그것이 무장의 운명인게야!

무장1 부르르 떠는가 싶더니 몸을 돌려 과녁을 향해 활을 쏜다.

민영환 내가 염치없는 짓을 했네 그러. (간다)  
무장2 이보게 영환이!  
민영환 (멈춰서며) 그러나 이것만은 잊지 마시게.  
아무리 활을 쏘든 무장으로써 그 부끄러움은 사라지지 않을테니.

민영환 사라지고.. 묵묵히 활을 쏘던 무장1 갑자기 활시위를 내린다.  
무장2 다가와 그의 등을 다독이며 돌아서는데..

무장1 (무장2의 팔뚝을 잡는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게야?  
 무장2 ...  
 무장1 나서지 말게.  
 무장2 영화의 말이 맞는게지.  
 무장1 우릴 버린 폐하를 위해 죽을 셈인가?  
 무장2 누굴 위해 죽을 생각은 없네.  
 무장1 그럼?  
 무장2 아무리 활을 쏘아도 이 가슴에 이는 바람을  
 잠재울 순 없네. 결국 우린 무인일 수밖에 없지 않나?  
 무장1 ... (활시위 당기며) 그렇게 죽는 게 소원이면..

무장1 과녁을 조준하는 가 싶더니 이내 수풀쪽으로 활을 쏜다.  
 쉬익~! 수풀속에서 비명소리. 검은 복면을 한 닌자들이 도망간다.

무장1 저승 길잡이는 다른 사람을 알아보시게.  
 무장2 벌써 쥐새끼들이 냄새를 맡았네 그러.

## 21. 육의전 시장통

담벼락에 붙은 방을 보고 사람들 웅성거린다.  
 “황실 어전 무술시합” 이라고 쓰여진 방.  
 사람들 틈을 부비고 들어와 방을 보는 털보.

## 22. 아랫대 살곳이 다리

개울가에 물풀 빨대가 보인다.  
 장작을 쌓아 놓고 불을 지피고 있는 택견꾼들.  
 장칼이 손을 부비며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털보가 방을 들고 헐레벌떡 뛰어온다.

털보 형님! 들으셨소? 저작거리에 온통 무술대회 얘기뿐이요.  
 장칼 안 그래도 그 얘길 하고 있었다.  
 털보 나가실 거죠?  
 장칼 윗대 사람들은 뭐라더냐?  
 털보 그놈들이야 나가겠습니까?  
 임호가 저리 몸을 사리는데.  
 장칼 왜 몸을 사린다고 그러더냐.

털보            그야 뭐...  
 장칼            나가서 병신이라도 되면 다행이다.  
 털보            그럼 이렇게 왜놈들 눈치나 보며 쥐새끼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참에 그 놈들 코를 납작하게 해주십시오.  
 장칼            왜놈들 코를 납작하게 해주기는커녕 니놈 코 베일라..  
 털보            나도 시위대 출신이요. 나라에서 무인들을 내치지만 았았어도  
                   지금쯤 목숨걸고 저놈들이랑 싸우고 있었을거요.  
 장칼            임오년때 일을 잊은게야?  
                   우리 동료들이 배가 고파 죽고 곤장을 맞아 죽고..  
                   임호도 제 어미가 그리 되었으니 어찌 폐하를 용서하겠느냐?  
 털보            ... 그럼 형님은 빠지슈.  
                   자네들은 우짤란가?  
 일동            ....  
 털보            무에 그리 무서운 게야?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일동            (고개를 돌린다)  
 털보            이런 쟌장...  
 장칼            (넋두리) .. 난 말이요.. 한 날 한 시라도 말이요..  
                   훨훨 뛰고 깨고 박차며 무인답게 살고 싶소..  
 일동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한숨)  
 장칼            모두 그걸 원하는 게 아니요!  
 털보            혀.. 형님!  
 장칼            한번 판을 벌려보시겠소?

장칼 앞뒤로 몸을 굽실거리며  
 품을 밟으며 활개짓을 하기 시작한다.

털보            (따라서 품 밟으며) 이크~!  
 장칼            에크~!

일동 주춤거리다가 하나 둘 품을 밟기 시작한다.  
 점점 역동적으로 변해가는 품밟기.  
 모두 하나가 되어 이크~! 에크~! 기합소리 하나가 된다.  
 물속에서 그들을 숨어 보는 시선.  
 난자들이 물풀을 문 채 서서히 떠오른다.

## 23. 경운궁 석조전

일본 군인들 석조전 앞에서 무력시위하듯 제식 훈련을 하고 있다.  
손에 들린 전단을 들어보는 덕혜. “인왕산 호랑이 임호선생”  
그때 민영환이 다가와 목례를 한다.

덕혜                그래 어찌 되었는가?  
민영환            (고개를 가로짓는다)  
덕혜                맺힌 것이 많을 게야.  
민영환            ... 지금이라도 이토와 한 약조를 물리시지요.  
                      마마께서 왜놈의 땅에 끌려가 당할 치욕을 생각하면..  
덕혜                ... 무술대회는 예정대로 열려야 합니다.  
                      (전단지를 보며) 말보다는 행동을 보여줄 사람이 필요해요.  
                      잃어버린 신민들의 용기를 되찾아 줄 그런 영웅 말입니다.

(인서트) 전단지에 박힌 “인왕산 호랑이 임호선생”이  
클로즈업되면서 그 위로 성난 호랑이의 울부짖음!

## 24. 용주 처소- 밤

복도를 다급하게 걸어가는 상궁들의 발 위로 전선출의 목소리.

전선출(소리)    그때였어! 어둠속에서 번갯불 같은 불뚝이 튀는 것이라!

장상궁 용주처소의 문을 확 열어제긴다.

전선출(소리)    어이쿠! 놀란 임호 선생 불을 땡겨보니!

무수리들 초롱불에 불을 땡긴다. 장상궁 방안으로 들어온다.  
용주가 다리만 내놓은 채 이불속에 누워있다.  
장상궁 다짜고짜 이불을 확 제긴다.

전선출(소리)    아이고야! 집채만한 인왕산 호랑이가 눈을 껌벅이며  
                      선생을 노려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용주복색의 지선이 장상궁을 보며 눈만 껌벅껌벅..  
장상궁 한숨을 쉬며 고개를 가로 짓는다.

전선출(소리) 그때! 어흥~! 아가리를 벌리며 호랭이가 달려 드는데!  
이크~! 에크~!!

## 25. 파고다 팔각정

인파1 에이 그건 좀 너무 했다. 멧돼지면 모를까.  
인파2 그러게. 호랑이가 뉘집 강아지도 아니고  
어떻게 맨손으로 때려잡어?  
전선출 못 믿겠으면 믿지마슈. 좋다고 해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뭐하슈? 한푼이라도 던지고 가야지~

사람들 낄낄 웃으며 그냥 가버린다.

전선출 저런... 저.. 귀동냥만 하다 빌어먹을 놈들...

땅바닥에 두둑한 엽전꾸러미가 던져진다.

전선출 고개를 들면 장옷을 입은 덕혜가 서있다.

## 26. 푸줏간

전선출 화주를 거칠게 내려놓는다.

전선출 뒤가 궁금하다?  
덕혜 그렇소.  
전선출 선생께서 집 뒷뜰에 묶어놓고 키운다고 그러디다.  
덕혜 그 무서운 호랑이를?  
전선출 (혹시 바보 아니야? 그런 눈초리로 덕혜를 훑는다)  
덕혜 날 임호선생께 안내해주시오.  
전선출 이상한 처잘세. 아 왜 그러시는데?  
덕혜 이 일은 나라의 명운이 달린 일이요.  
전선출 명운이라..?

선출 엽전꾸러미를 만져보다

덕혜가 껴안고 있는 보따리에 시선이 박힌다.

전선출 임호선생은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닌데...  
덕혜 그래서 내 이리 부탁하지 않소이까?

일만 잘 성사되면...

전선출          (화주를 내밀며) 일단 목부터 축이시오.

덕혜            난 이런 거.. 못 먹소.

전선출          이.. 이런거? 하하.. 난 사람은 믿지 않으나  
                                이건 민소이다. 진정으로 선생을 만나보고 싶다면  
                                처자의 마음을 보여주시오.

덕혜 망설이는가 싶더니 화주를 들이킨다.  
선출 뜻대로 된 듯 음흉한 미소를 짓는데..  
몇 자리 떨어진 곳에서 임호가 이 모든 것을 듣고 있다.

## 27. 시장통 골목

시래기 더미에 내던져지는 덕혜. 만취했다.  
보따리를 빼내려고 킁킁거리는 선출.  
뒤에서 누군가 그의 엉덩이를 걷어찬다.

선출            (자빠지며) 어이쿠! 어떤 오살할놈이여!  
                                내가 누군줄 알고!

소리            누군데?

선출            (돌아서며) 바로 인왕산 호랑이 임호다!

임호가 눈을 부라리며 노려보고 있다.

## 28. 임호 집. 방안- 아침

무언가가 잠든 덕혜의 얼굴을 훑고 있다.  
덕혜 눈을 뜨면 호랑이 얼굴이 그녀 앞에 혀를 낼름거린다.  
기겁을 하며 방구석으로 물러서는데.. 보면 아기 호랑이다.  
떨고 있는 덕혜의 손등을 양증맞게 핥는 호랑이.  
밀쳐내려는데 임호가 밥상을 들고 들어온다.

임호            너무 박하게는 하지 마시오.  
                                에미를 잃은지 얼마되지 않아서 정을 많이 탄다우.

덕혜            (자신의 옷차림을 추수리며 경계한다)

임호            걱정 마시오. 아무일도 없었으니.

덕혜            (보따리를 찾아 꺼안는다)



임호            자 일단 밥부터 먹으며..  
덕혜            사실대로 이실직고 하지 않으면  
                  네 놈의 목을 쳐서 저잣거리에 매달아 놓을 것이다!  
임호            (헉!)

## 29. 동. 마당

문을 닫고 나오는 임호.  
박무경과 전선출, 덕구가 보고 있다.

임호            (헛기침 하며) 허참. 아무리 봐도 정신이 온전치 않은 거..  
                  선출이 네 이놈! 그놈의 주둥이가 박살난지 얼마나 됐다고  
                  또 날 팔고 다니는 게야! 얼른 보쌈질 한테로 돌려보내!  
전선출          제발로 날아온 제비를 내 무슨 수로 막남?  
임호            ...

## 30. 경운궁 옹주 처소 앞

상궁들이 이토의 앞을 막고 있다.

상궁            다음에 오시지요. 마마께서 아직 기침전이오라...

(인터컷) 장상궁 빈방에서 초조하게 밖에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무수리들 상궁들 곁으로 모여며 길을 막는다.  
이토 눈짓을 주자 군인들 총칼로 위협하며 길을 뜯는다.

## 31. 동. 처소 안

문이 거칠게 열리며 이토와 군인들이 들이닥친다.  
장상궁 막아서고 무수리들 몸으로 막는다.  
이토 군인들에게 눈짓을 주는데...  
장상궁 뒤에서 나는 소리.

(소리)           모두 물러서거라.

장상궁 살을 내리고는 옆으로 비켜선다.  
내려진 살 사이로 용주의 실루엣.

이토 (고개 숙이며) 통 모습을 보이시지 않기에...  
(소리) 몸이 좋지 않소. 다음에 오시오.

군인들 밀고 들어가려는데.. 이토 그만하라는 손짓.

이토 본국으로 가실 때 까지는 꽤차하셔야지요.  
제가 그때 모시지요.

목례하고 뒤돌아가는데 이상한 듯 장상궁을 쳐다본다.  
문이 닫히자 참빗을 떨어뜨리는 용주복색의 지선.  
장상궁 들어와 울먹이는 지선을 달래듯 안는다.

장상궁 아직 목 놓아 울어야 할 일들은 시작도 하지 않았느니라.  
지선 마마께 궁으로 돌아오시지 말라 하시옵소서.  
사대문을 벗어 나시고, 도성을 벗어나셔서  
새처럼, 바람처럼 살라 하시옵소서.

## 32. 석조전 앞

일본 군인들 무력시위 중.  
말을 탄 우치베가 그들을 지휘하고 있다.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이토와 하야시.

하야시 오래 전 일이나, 시위대무장출신들입니다.  
그들이 이번대회에 나선다면..

이토 나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지는 게지.

하야시 그런데 어째서..

이토 이미 조선은 사라졌네.

그걸 그들에게 일깨워줘야지.

누구도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것을 말아야.

하야시 문제가 있사옵니다.

우치베 대위가 각하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우치베를 보고 있는 이토의 눈꼬리가 올라간다.

### 33. 이토 처소(다다미 방)

유카타를 입은 이토에게 무릎을 꿇은 채 보고를 하고 있는 닌자들.  
하야시와 우치베가 들어온다. 닌자들 양쪽으로 물러선다.

이토            그래 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  
우치베        (닌자들을 보고는) 각하. 귀가 많사옵니다.  
이토            (고개짓 하자 닌자들 사라진다)  
우치베        첩자를 쓰실거면 저희 헌병대에도 이미 정탐업무를 하고 있는..  
이토            건방지구나. 감히 내가 하는 일에 토를 달다니.  
우치베        ...  
이토            공사에게 무술대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했다면?  
우치베        꼭두각시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토            꼭두각시라...  
우치베        자객을 쓴다고 들었습니다.  
이토            (눈꼬리가 꿈틀)

마루야마 경시가 들어온다.  
이토를 보고 정중히 목례.  
우치베를 보고는 얼굴이 굳는다.

마루야마      저를 부르셨다고 들었습니다.  
이토            우치베 대위가 여우사냥에 참가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군.  
                자객을 쓴다는게 자존심이 상하나 보지. 자네도 그렇게 생각하나?  
마루야마      ...

### 34. 동. 복도

우치베와 마루야마가 밖으로 나온다.  
복도를 걷는 두 사람. 웬지 살벌한다.

우치베        경성엔 언제 온거냐?  
마루야마      ...  
우치베        우린 군인이기전에 무사였다는 걸 잊어선 안 된다.  
                부끄러운 짓을 해서는...  
마루야마      그런말을 할 수 있다니 놀랍군.

비웃듯 기분나쁘게 웃으며 복도끝으로 사라지는 마루야마.  
그의 뒷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우치베.

### 35. 하세가와 처소(다다미 방)- 석양

검을 닦고 있는 하세가와.  
등 뒤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 우치베.

하세가와        그 노친네 드디어 내게 칼을 뽑아들었군.  
우치베        (찾잔만 응시한다)  
하세가와        너희 아버지가 언젠가 내게 이런 말을 했다.  
                  하세가와! 넌 사무라이다. 왜 자꾸 저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인가!  
                  난 이렇게 말했지 형님은 무사고 전 소인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사는 어디서든 죽을 수 있으나 소인배는 어디서든  
                  살아남지요... 참으로 소인배 다운 대답이 아닌가? 하하..  
우치베        (차만 마신다)  
하세가와        형님께서 살아계셨다면 내게 뭐라 말해줬을까?  
                  (쓴 웃음) 고개를 낮춰라. 진정한 사무라이는 오래전에 사라졌어.  
우치베        군복을 벗겠습니다.

하세가와 뒤돌아보면 우치베 벌써 일어나 나가는데..

하세가와(소리) 마루야마가 경성에 왔다지?  
                  법과 호랑인 같은 골짜기에 살지 않는 법.  
                  동경으로 가거라.

### 36. 황학정- 밤

햇불을 밝히고 활을 쏘고 있는 무장들.  
밖이 소란스럽다. 돌아보면 마루야마 경시가 순사들과  
함께 들이닥친다. 젊은 무장들 그들과 몸싸움.

마루야마        오야지가 누군가?  
무장1        무슨 일이요?  
마루야마        난 마루야마 경시라고 한다.  
                  소문을 듣자 하니 너희들 중에 시위대에서 가장 뛰어난

무술실력을 가진자가 있다고 들었다.  
 그 자와 한 번 겨뤄보고 싶다.

무장2           우린 시위대가 아니요.

마루야마       이들을 체포해.

무장2           무슨 죄로 말이요!

마루야마       시위대도 아닌 자들이 어찌 경복궁 근처에서 무술수련을  
 하고 있는 건가? 모두 대역죄로 다스릴 일이야.

무장1 발끈 하며 나서려는데 무장2가 막는다.

### 37. 동. 공터

무장들과 일본 순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장2와 마루야마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른다.  
 숨막히는 정적을 깨며 무장2가 돌격해 들어온다.  
 마루야마에게 사정없이 주먹과 발로 연타를 날리는 무장2.  
 그러나 마루야마 꿈적도 하지 않는다. 무장2의 옷 소매를 잡는가  
 싶더니 엎어치기로 메다 쫓는 마루야마.  
 비틀거리며 일어서는 무장2의 턱을 날려버린다.  
 실신직전의 무장2 얼굴이 피범벅이 된다.  
 앞 가슴을 걷어차버리는 마루야마.  
 자빠진 무장2에게 성큼 걸어가 그의 머리를 잡는다.

무장1           안 돼!!

사정없이 무장2의 목을 꺾어버리는 마루야마.

(시간 경과)

젊은 무장들 고개를 숙인 채 모여있고 그 안으로 카메라 들어가면  
 무장1이 죽은 무장2의 눈을 가린 채 오열하고 있다.  
 그의 어깨 위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무장1           (흐느낌) .. 나서지 말라하지 않았는가!  
                   도대체!! 누구 위해 이래야 된단 말이야!!

무장1의 흐느낌만이 황학정 위로 흐른다.

### 38. 누상동 장칼 집 앞- 밤

환하게 불을 밝힌 전등불을 신기하게 보고 있는 임호.

덕혜            임호선생께 안내하라 했거늘 무얼하는 게야!  
임호            도깨비 불 같소이다. 허허.  
덕혜            한심한 놈이로다. 그 나이 되도록 전기가 뭔지도 모르다니.  
임호            ... 난 선약이 있다 하지 않았느냐.  
                  선출이 그놈에게 물어보거라. 임호인지 개뻥다귀인지.  
덕혜            이런 무뢰한 놈! 어찌 선생의 이름을 함부로...

갑자기 덕혜의 입을 틀어막으며  
어둠속 담벼락으로 밀치는 임호.

덕혜            무.. 무슨 짓을 하려는 게야...  
임호            쏜!

반대편 담벼락에서 뛰어내려오는 닌자들.  
우두머리 닌자 골목을 빠져나가다 낚새를 챈다.  
눈짓을 주면 칼을 뽑아들고 달려드는 닌자들.  
어둠속에서 몇 번의 합을 겨루는 소리.  
임호 모습을 들어낸다. 달려들며 칼을 휘두르는 닌자들.  
임호 피하며 뒤 돌려차기로 턱주가리를 날려버린다.  
이내 앞차기로 또 다른 닌자의 앞 가슴을 질러버린다.  
덕혜를 발견한 우두머리 닌자의 눈이 커진다.  
부상자를 업고 신속하게 물러나는 닌자들.  
임호 불길한 얼굴로 장칼의 집으로 뛰어간다.

### 39. 장칼 집 마당

임호가 뛰쳐들어오면 칼을 맞은 택전꾼들이 쓰러져 있다.  
마당에서 털보가 죽은 장칼을 붙들고 오열하고 있다.

박무경            순식간에 당했네.  
임호            (널브러진 술병을 들어 냄새를 맡는다)  
박무경            아랫대 택전꾼들 태반이 당했어.  
                  무술대회에 참가하려던 사람들은 모두 다.

임호                술에 독을 탔구먼.  
덕혜                누.. 누가 이런것을...

임호 눈을 부릅뜬 채 죽은 장칼의 눈을 덮어주는데..  
덱석 손목을 잡는 털보의 손.

털보                장칼 형님이 그러셨지...  
한 날 한 시라도 훨훨 뛰고 깨고 박차며 무인답게 살고 싶다고.  
(이를 악물며) 임호! 자네가 나서 주게.

임호란 말에 덕혜의 눈빛이 빛난다.  
임호 털보가 잡은 손을 풀며 돌아선다.

털보                (버럭!) 무엇이 네놈을 그리 만든게야!  
임호                (가며) 사대문을 벗어 나게.  
털보                (임호의 등에 대고) 도망가는 게냐?  
임호                조용해지면 기별을 줘세..  
털보                한 발자국만 더 가보거라.

임호 외면한 채 사라지자, 맥이 풀린 듯 주저 앉는 털보.  
미친사람처럼 길길거리며 웃기 시작하자,  
박무경 하늘을 보며 긴 한숨을 토해낸다.  
주먹을 말아쥐며 입술을 깨무는 덕혜.

#### 40. 이토 사저

이토가 난자들의 보고를 받고 있다.

이토                어쩐지 함령전에 있어야할 장상궁이 옹주의 처소에  
있다는 것이 이상하다 싶었는데...  
하야시            조약을 성사키시기엔 좋은 기회가 아니옵니까?  
                      덕혜옹주는 어려서부터 왕의 총애가 각별했지요.  
                      경운궁안에 직접 옹주만을 위한 유치원까지 만들정도였으니.  
이토                결국, 국새는 옹주가 가지고 있다는 말인데.  
                      (피식 웃으며) 맹랑한 계집이구나.

마루야마가 들어와 목례한다.

이토                그 정도 본을 보였으면 함부러 무술대회에 나서는 놈은 없겠지.  
                      역시 천황폐하 어전시합에서 4연패를 한 유도왕 답구나.

마루야마        (고개를 숙인다)

이토                자네가 해줄일이 하나 더 있네.

마루야마        각하. 그전에...

이토                아! 걱정마. 자진해서 군복을 벗었으니까.  
                      더 이상 우치베 대위를 보호해줄 곳은 없어.  
                      둘이서 결판을 내든 말든 우린 관여하지 않겠네.

마루야마        (고개를 숙인다)

#### 41. 푸줏간

덕구가 화주를 탁자에 놓으며 누군가를 노려본다.  
 신사복 차림의 우치베가 혼자 술을 마시고 있다.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온다. 덕구의 입이 떡 허니 벌어진다.  
 거구의 마루야마 경시가 한 자리 건너편에 앉는다.  
 술을 마시던 우치베의 미간이 구겨진다.

마루야마        혼마치엔 코빼기도 보이지 않더니  
                      이런 냄새나는 조센징 가게에 숨어있었군.

덕구 술잔을 갖다놓으며 두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데  
 덕구 부모들 덕구를 데리고 밖으로 피한다.  
 두 사람 사이에 전운이 감돈다. 숨막힐 듯한 정적.  
 우치베 여행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마루야마 술잔을 던지자 본능적으로 발로 막아내는 우치베.  
 그와 동시에 검을 뽑아들고 달려드는 마루야마.  
 일순, 그의 칼이 우치베의 목을 향하는데... 멈칫한다.  
 눈을 감은 채 돌처럼 움직이지 않는 우치베..  
 목에서 살짝 베인 핏방울이 칼날을 타고 흘러내린다..

마루야마        아라사와의 전투가 치열했다지?

그말에 눈을 뜨는 우치베.

마루야마        유기를 직접 베었나?



목에 겨눈 마루야마의 칼에 힘이 들어간다.  
우치베의 목에서 핏물이 흘러내린다.

마루야마      탈영을 하려고 했다지.  
                  녀석 답군... ㅋㅋ... 떨어지는 사쿠라를 보고 계집애처럼  
                  울던 놈이 일본 최고의 무술실력을 가졌었다니...  
우치베        유키는.. 전투중에 전사했다.

마루야마 피식 웃더니 검을 거둔다.  
돌아서서 나가다가...

마루야마      보고서에 그렇게 써줘서 고맙다.  
                  그렇지만... 부끄러운 동생일지라도... 난 녀석의 형이다.  
                  녀석의 목숨을 거둔자와 같은 하늘아래 살 순 없다.

문을 벌컥 열면 싸릿눈이 쏟아져들어온다.

마루야마      유키는 나보단 널 더 형처럼 따랐었는데...  
                  ㅋㅋ... 멍청한 놈...

미친사람처럼 킬킬거리며 사라지는 마루야마.  
자리에 털썩 주저앉는 우치베.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잔을 들다가 힘없이 내려놓는다.  
쏟아져 들어온 싸릿눈이 술잔위에 쌓여간다.

## 42. 시장통 거리

시장 아낙네들 지나가는 임호를 보고 반갑게 인사를 한다.  
같이 인사하며 지나가는 임호. 그 뒤를 덕혜가 따른다.

임호            아직도 안 간 게냐?  
덕혜            자네가 진정... 임호선생이 맞는가?  
임호            이 나이 되도록 전기도 모르는 한심한 놈이 선생은 무슨...  
덕혜            아까는 내가...

그때 젊은 택견꾼들이 시장통 여기저기서 물려나온다.

그 속에 박무경도 보이고... 모두 흥분해 있다.  
사람들 뒤로 사무라이들이 검을 뽑아든다.  
그들을 수적으로 우세한 택전꾼들이 둘러싼다.

임호           (인파를 헤치고 들어가며) 멈추거라!  
박무경        자넨 나서지 말게!  
임호           왜 자네까지 이러는 게야!  
박무경        (외면하며) 뭐? 품샷에서 자릿세를 떼겠다고? 쥐새끼같은 놈들!!  
                그 동안 참느라 불알이 다 떨리는 걸 참고 있었다.  
사무라이1    길을 내지 않으면... 모두 베어버리겠다!  
박무경        (콧방귀 끼며) 내 발따귀가 네놈 칼보단 빠를게다.  
택전꾼1       하모. 형님 까소 마!  
택전꾼들      까라! 까라! 까라!

택전꾼들 모두 흥분해서 술렁인다.  
사무라이들 그 기세에 기가 죽는다.  
야마다가 일본상인들과 나타나자..

임호           (택전꾼들 앞을 막아서며) 모두 돌아가!  
택전꾼1       형님은 나서지 마소!  
택전꾼2       형님은 무신... 아랫대 얘기 다 들었소.  
                무술대회에 나가는게 무서워 내뺐다는...

철썩! 박무경이 택전꾼2의 뺨을 갈긴다.  
일순 조용해지고...

박무경        내뺐다니! 임호가 누군지 모르는 게야!  
택전꾼2       ....  
임호           (나직히) 모두 그만 돌아가시게..  
택전꾼1       그 말 안 따르겠수.  
                나 형님말 콩으로 메주 쏜다고 해도.. 이젠 못 믿게소.  
                정말 지금 이 앞에 있는 그놈이 내가 알던 우리 형님이  
                맞는게요.. 아니면.. 아니면..  
임호           아니면!  
택전꾼2       (택전꾼1이 차마 말을 못하자..) 사람들이 형님을 두고 왜놈의  
                더러운 돈을 받은 매국노라 손가락질 하더이다!  
                이빨빠진 인왕산 호랑이라 하더이다!

박무경            네 이놈!

택견꾼2을 때리려던 박무경의 손목을 잡아채는 임호.

박무경과 임호의 시선이 교차한다.

힘없이 손을 내리는 박무경.

임호가 사람들을 헤치고 말없이 간다.

박무경            이보게! 임호!

### 43. 시장통 골목

길을 가던 임호 멈춰선다.

뒤따르던 덕해도 멈춰선다.

임호            내게 원하는 게 무엇이나?

덕해            매국노가 아니라면... 무술대회에 나가시요.

더 이상 사람들 실망시키지 말고.

임호            맹랑한 계집이로다.

덕해            두려워서 그러는 거요?

임호            ... 대접에 들어가면 누구나 목숨을 건다.

그건 상대방도 나처럼 목숨을 걸기 때문이다.

그런 판에서 두렵지 않을 수 있겠느냐?

덕해            군주폐하를 위해 목숨을 거는 것이요!

임호            .... 궁에서 보낸 무수린가 보구나.

그 양반이 급하긴 어지간히 급했던 모양이군.

폐하께 전하거라! 한 번이라도 우리들을 위해 목숨을 걸어본 적이

있으셨는지? 지금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 사람은 우리들이

아니라 바로 궁궐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분이라고!

덕해            이놈!! 내 앞에서 존엄한 군주폐하의 일을 입에 담다니!

감히 내 앞에서... 내가 누군줄 알고.....!!

누군가 덕해 손을 덥석 잡는다.

사무라이들이 임호일행을 둘러싼다.

사무라이1        낄낄 누구신데?

금지옥엽 옹주마마라도 되시나?

덕해            (따귀를 갈기며) 그래! 내가 이 나라의 옹주다!

궁으로 돌아가면 내 너희놈들을...  
임호 (사무라이1의 손을 잡으며) 궁에서 나온 나인이요!  
사무라이1 그래서?  
임호 함부로 대하는 것은 군주폐하를 능멸하는...

쩍! 뒤에서 칼집으로 임호의 목을 내리치는 사무라이2.

사무라이1 낄낄.. 군주폐하?  
그런 놈이 무술대회엔 왜 꿈무늬를 빼셨나?

일어나려는 임호의 머리를 발로 밟는 사무라이1.  
진흙탕에 얼굴을 박힌 임호... 두 주먹을 불끈 쥐는데...

사무라이1 야마다상과의 약조를 잊었나 보군.

임호 진흙탕에 처박힌 고개를 들면 참혹한 물골.  
브르르 떨리는 주먹... 호랑이 눈처럼 매섭게 변한 눈초리.  
사무라이들 주춤거리며 칼집에 손을 대는데...  
보면 임호 돌아서서 옷을 털며 가려한다.

사무라이1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꺾꺾꺾!  
인왕산 호랑이가 아니라 똥개였구나! 하하하!!

사무라이들 모두 비웃는다.

덕혜 야이.. 매국노야! 왜놈 앞에서 꼬리를 내리다니.  
어서 돌아서서 싸우거라! 어서!  
사무라이1 (뒤에서 안으며) 낄낄.. 고 계집 성정이 보통은 아닌데..

낄낄거리며 덕혜를 희롱하는 사무라이들.

(소리) 구역질이 나서 더는 못 참겠다.

사무라이들 험상궂은 표정으로 돌아보면 임호가 아니라  
어둠속 담벼락에서 나는 소리다. 술에 취한 우치베가 비틀거리며 일어선다.  
사무라이1 다가가면 그의 가슴에 토를 하는 우치베.

사무라이1        이놈이!

사무라이1의 칼이 우치베의 왼팔을 스친다.

키득키득 웃는 우치베. 사무라이1 독이 오르는지 다시 칼로

우치베의 옆구리를 관통한다. 그러나 실실 웃기만 하는 우치베.

그의 옆구리에서 칼을 빼며 질린 듯 물러서는 사무라이.

칼을 거두며 무리를 이끌고 사라진다. 담벼락에 기대며 쓰러지는 우치베.

덕혜와 임호가 다가와 그를 부축한다. 우치베를 알아본 덕혜의 눈이 커진다.

임호                피를 많이 흘렸어. 일단 업자고.

덕혜의 발길질에 꺾하고 쓰러지는 임호.

덕혜                이런 쳐 죽일 놈...

#### 44. 개울가

우치베를 업고 개울을 건너는 임호.

그 뒤에서 망설이며 거센 물길만 보는 덕혜.

반대편에 도착한 임호 뒤를 돌아본다.

임호                뭐해?

덕혜                못 건너겠어.

임호                그럼 궁으로 돌아가.

덕혜                (고개를 젓는다)

임호                답답한 계집애일세.

임호 우치베를 내려놓고는 반대편으로 침병거리며 뛰어와

단숨에 덕혜를 업고는 개울을 건넌다.

덕혜 업힌 채 임호의 발을 본다.

덕혜                시럽지 않느냐?

임호                이깟게 뭐 춥다고.

덕혜                매국노가 힘만 좋구나.

임호                자꾸 궁시렁 거리면 개울물에 처박아 버릴테다.

덕혜 입을 꼭 다물고 임호등에 얼굴을 묻는다.

#### 45. 윗대 마을 전경- 아침

인왕산 자락 밑에 웅기종기 모여있는 초가집들.  
자욱한 안개 사이로 밥 짓는 연기가 하나 둘 피어오른다.

#### 46. 임호네 집

방에서 하품을 하며 나오는 덕혜.  
마당에서 덕구와 마주친다.

덕혜               (쓰다듬으며) 어머 꼬마가 참 복스럽게 생겼구나.  
덕구               누나가 우리 호랑이 아저씨 색시될 사람이라며?  
덕혜               뭐?

그때 옆방에서 의원과 임호가 나온다.

의원               걱정말게. 상처가 그리 깊지 않으니..  
                      오지랖도 넓으니 왜놈 같은데... 그냥 뉘지게 놔두지 뭐하랴...  
임호               (꾸벅 인사하며) 욱 보셨습니다.  
의원               (가며) 자네 몸이나 신경 써. 발이 그게 뭐가?  
                      발싸개라도 좀 하더지... 그럼 감세.  
임호               살피가십시오.

의원 가면 덕혜 다가와

덕혜               발싸개? (임호 발을 보면 동상인 듯 별정다)  
임호               (짚신을 신는데 발이 아리다)  
덕혜               (미안해서) 그러게 왜 괜찮다는 사람은 업고서...  
임호               (뚱한 표정으로 쳐다본다)  
덕혜               ... (무안하다)

#### 47. 동. 부엌

아궁이에 불을 때며 켜켜 거리는 덕혜.  
밖에서 인기척이 들린다.

춘봉(소리) 부엌에 누가 있나?  
덕구(소리) 임호 아저씨 색시가 밥 지어.  
춘봉(소리) 색시라니! 이놈이 갑자기 무슨소리를 하는 게야?

부엌문을 열고 들어오는 춘봉. 덕혜와 마주친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보다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한다.

#### 48. 동. 뒷뜰

춘봉이 허리를 조아리고 어쩔줄몰라 한다.

덕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절대 내색해선 안 되네.  
춘봉 마마. 소인은 그저 어찌해야 좋을지...  
덕혜 이 일은 나라의 명운이 걸린 일일세.  
춘봉 그렇다 해도 이 누추한 곳에 어찌 존엄하신 마마께서...  
임호(소리) 누가 너보고 밥하래!

#### 49. 동. 방

손가락 들고 덕혜를 쏘아보는 임호.

덕혜 입에 안 맞소?  
임호 수랏간에 있긴 있었던 게냐?  
덕혜 뭐.. 잠시...  
춘봉 야 이놈아! 맛만 좋구만 빨랑 쳐먹기나 혀.  
임호 아부진 잠자코 계슈.  
                    콧빼기도 안 보이다가 우째 집에 다 들어오셨소?  
                    엄니가 계셨음 온전치는 못했을 거요.  
춘봉 이놈아 죽은 사람은 왜 또 들먹여?  
덕혜 자당께서 돌아가셨소이까?  
임호 (손가락으로 덕혜 머리통을 때린다)  
덕혜 아얏!  
임호 가서 숯덩이나 가져오거라.

덕혜 눈을 흘기며 밖으로 나간다.

춘봉 (임호 먹살 잡으며) 오메~! 이 놈이 죽을려고 환장했나!  
 임호 왜 이러우?  
 춘봉 감히 존귀하신 몸에 꿀밤을... 어허~!  
 임호 같은 공사람들끼리 편드는 거요?  
 춘봉 이 오살할 놈아! 저분은... 아흑... 미치겠다!!

방바닥을 데굴데굴 구르며 가슴을 치는 춘봉.

## 50. 동. 뒷방

옆구리에 붕대를 감은 우치베가 벽에 기대있다.

임호 (여행 가방을 보며) 하마터면 죽을 뻔 했소이다.  
 우치베 (덕혜와 시선이 교차한다)  
 임호 딱히 있을 곳이 마땅치 않으면  
 상처가 아물때까지 잠시 계셔도 좋소.  
 우치베 내게 이러는 이유가 뭔가?  
 임호 사람들 앞에서 개망신 당한 건 태어나서 그때가 처음이었소.  
 우치베 ...  
 임호 그에 대한 내 보답이외다.  
 우치베 보답...?  
 임호 미련이 남았을 거요..  
 그쪽에서 날 개박살내주지 않았다면...  
 우치베 날 바보로 아는가?  
 다시 한번 붙어보세.  
 이번엔... 진짜로 말이야.  
 임호 (고개를 저으며 미소) 모두 부질없는 짓이요.  
 우치베 (열은 미소 띠며) 부질없다... 그럴 수도 있겠지..

임호 말없이 웃으며 나간다.  
 덕혜가 우치베를 노려본다.

우치베 (시선을 피하며 돌아눕는다.)  
 설혹, 그대가 내가 아는 그 사람이라 해도 이젠 내 알바 아니요.

## 51. 동. 다른 방- 밤



덕혜가 보파리에서 비단옷 조각을 꺼내 입으로 찢는다.  
황실을 상징하는 이화(李花) 무늬가 선명하게 수놓아진 비단.  
발싸개를 만드는 것 같은데.. 옆방에서 두런두런 사람들 수군거림.  
덕혜가 창호지 문에 귀를 대고 엿듣는다.

## 52. 동. 옆방

남꽃불 너머로 박무경과 전선출이 보인다.  
임호가 입을 다문 채 눈을 감고 있다.

박무경            불렀으면 뭘 말이 있어야지.  
전선출            아 복장 터져 죽겠네.  
                     왜놈들 눈치 안 보고 살 방도가 그러니까 뭐냐고?  
임호              (눈을 뜨며) 신문물을 배우고 익히는 것.  
전선출            (벌러덩 누워버리며) 또 그 소릴세.  
박무경            난 도통 뭘소리인줄 모르겠네.  
임호              요새 황성 시내엔 듣도 보도 못한 별의별 일거리들이  
                     사람들을 구한다고 하더군.  
전선출            (벽에 모로 누워서) 개빨.  
임호              돈이 제법 된다 하네.  
전선출            (벌떡 일어나며) 이를 테면?

임호 한쪽을 지긋히 쳐다본다.  
일동 그쪽을 돌아보면 남꽃불이 일렁이고 있다.

## 53. 한미전기회사 앞

가로등으로 바뀌며.. 한미전기회사 간판 아래서  
들어가지는 못 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세 사람.

박무경            앞장서게.  
임호              (가로등을 보며) 다음 날 오세.  
                     오늘은 불이 너무 환한 거 보니 바쁘가 보이.  
박무경            그게 뭘소린가?  
임호              일이 바쁘다는 소릴세. 저렇게 환하게 불을 지필려면  
                     안에서 무척 바쁠게야. 좀 한가할 때 오세. 그게 예의일세.  
박무경            그.. 그런가?

전선출            임호의 얘기도 그리 틀린 말만은 아닐세.

줄행랑 놓듯 바빠 사라지는 세 사람.  
그 모습을 숨어서 보고 있는 덕혜.

## 54. 육의전 시장통- 아침

벽에 붙은 무술대회 벽보. 그 앞에 임호가 서서 보고 있다.  
전선출과 박무경이 다가와 그의 시선을 따라가보면  
군악대원 모집 벽보.

박무경            군악대라?  
전선출            뽕과리 치고 창하는 곳일세.  
임호              왜 동하는 가?  
박무경            난 이걸로 함세.  
임호              허허. 이 사람 농이 심하네.

박무경의 얼굴이 심각하자 임호, 선출 눈이 커진다.

## 55. 파고다 팔각정

군악대원 시험에 응시하고 있는 박무경.  
좁 떨어진 곳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임호와 선출.  
일렬로 도열한 사람들 하나씩 나팔을 불어보고 있다.  
그 옆을 지나가며 붓으로 가부를 적고 있는 독일인 군악대장.  
어설프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소리가 나는 옆 사람들.  
박무경 차례가 되자 있는 힘껏 불어제끼는데.. 소리가 안 나자  
다시.. 그래도 소리가 안 나자 다시 있는 힘껏!  
뿌앙~! 방귀소리가 크게 터진다.

임호              앞에서 나아할 소리가 뒤에서 났네 그러.

군악대장 붓으로 X를 크게 적으며 지나간다.  
머리를 굽적이며 얼굴을 붉히는 박무경.

## 56. 방앗간- 밤

어두운 장내 무대 밑에는 사람들 구름처럼 앉아 있고  
영사기를 들고 들어오는 한미전기회사 관리원과 인부들.  
무대 한쪽에 변사자리에 가 있는 임호 일행.  
전선출 계속 변사가 들고 있는 원고를 보며 귀찮게 한다.

전선출           이거 하면 얼마나 받소?  
변사             곧 시작하니 자리에 가 앉으시오.  
전선출           입으로만 나불거리면 되는 거 아니오?  
변사             말이야 쉽지. 아무나 못하오.  
전선출           (부러운 듯 입맛을 다신다)

영사기가 돌아가고 활동사진이 하나 둘 보인다.  
변사의 간드러진 멘트가 플랫폼 전경을 담은 흑백 영상(르미에르 형제) 위로 흐른다.

변사(소리)       그렇다. 이곳은 법국의 역사이다.  
                  사람들은 모두 이 신기한 화차를 타기 위해 역사로 몰려들었다.

(인서트)  
역사 안으로 증기를 뿜으며 달려오는 기차.

보고 있던 좌중들, 놀란다. 탄성!  
임호의 눈이 점점 커진다.  
달려오는 기차를 보고 벌떡 일어나 소리친다.

임호             화통이 뚫치고 있소! 모두 피하시오!!

임호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뛰쳐 나간다.  
사람들 속에 있던 덕혜 어이가 없는지 스크린과 뛰쳐 나가는  
임호를 번갈아 보며 고개를 가로젓는다.

## 57. 한미전기 회사 앞

박무경           우짚건가? 여기가 아무래도 마지막이 될 거 같은데.  
임호             (환한 가로등을 보며) 예의가 아닐세. 저리 바쁘지 않나.  
전선출           (부싷돌을 꺼내 곰팡대에 불을 붙이려 하지만 안 붙는다)  
                  에이씨.. 그럼 가서 불이나 좀 얻어가세.

선출 성큼 안으로 들어가면  
뒤에 남은 임호와 무경 서로 눈치만 본다.

## 58. 동. 마당

마당에 깔린 전선줄을 옮기는 인부들.  
관리원이 설계를 보고 뭔가를 옮겨적고 있다.  
그 옆으로 작은 전등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다.

관리            용건만 말하십시오.  
임호            사람을 구한다고 해서 왔소이다.  
관리            어디.. (아래위로 훑어보며) 그래 전기 가설원에 대해선 좀 아시오?  
임호            꼭 그사람을 통해야 하오? 내가 불은 잘 때지요.  
관리            ... 미안하지만 이곳은 황실에 속해 있어서 아무나 받지 않소.  
임호            그게 뭐 말이요?  
관리            최소한의 과학적 지식이 필요한 일이란 말이요.  
전선출(소리)   에이씨 왜 이리 불이 안 붙는 거.

돌아보면 전선출 전등에 곰팡대를 대고 연신 빨고 있다.

관리            (쫓아내며) 나가시오!  
임호            잠깐! 한마디만 하고 가겠소.  
관리            해보시오.  
임호            (꺾속말로.. 전등을 보며) 저거 불은 어디서 땀답디까?  
                  아궁이가 도통 보이지 않네 그러.

## 59. 동. 앞

밖으로 쫓겨나는 세 사람.  
덕혜가 서서 그들을 한심스럽게 보고 있다.

덕혜            한다는 짓들이...  
임호            험.. 오늘은 무척 바쁘다고 그러네.  
                  (가로등 보며) 저렇게 활활 태울려면 불을 얼마나 때야 하누..  
덕혜            저건 불이 아니라 전기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겠누?  
전선출          전기?

덕혜            그렇지. 전기란... 그러니까 전기란..  
 일동            (어리둥절한 표정)  
 덕혜            그만 돕시다. 정녕 이곳에 자리를 얻고 싶소?  
 일동            (고개를 마지못해 끄덕)  
 덕혜            (들어가며) 그럼 나를 따라 오세요.

일동 서로 눈만 껌벅이며 어리둥절해 한다.

## 60. 동. 마당

관리원과 말을 나누고 있는 덕혜.  
 멀뚱멀뚱 구경만 하는 임호일행.

덕혜            이곳이 황성시내에 전기를 들어오게 하는 곳이 맞지요?  
 관리            허허 똑똑한 처자로다. 전기에 대해 아시오?  
 덕혜            제 처소에도 전기가 들어오지요.  
 관리            처소에 전기가 들어온다?  
                   허 놓이 심하시구려. 그런 집이 어디있소? 혹 궁이라면 모를까?  
 덕혜            맞습니다.  
 관리            (일어서며) 아니.. 뉘신지..?  
 덕혜            이곳이 황실소속이라고 들었습니다.  
 관리            그렇습니다만..  
 덕혜            (임호 일행을 보며) 그럼 이 사람들을 여기서 일하게 하세요.  
 관리            (조심스럽게) 궁 어디 계시는 분이신지?  
 덕혜            (꺾속말) 내가 바로 이 나라의 옹주요. 덕혜옹주...

## 61. 동. 앞

문 밖으로 쫓겨나는 네 사람.

관리            아무리 시국이 어수선 하다고 그래도 그렇지!  
                   어디 옹주마마 행세를 하고 다녀! 매국노가 따로 없네 그려!!

썩썩 거리며 문을 닫아건다.

임호            (덕혜를 빠꼼히 쳐다보며) 옹주마마라..  
 박무경          그러게 내가 눈빛이 이상하다고 그랬잖나.

전선출            처음 볼때부터 정신이 온전치 않더구만.  
덕혜            ....

## 62. 유각골 안터바닥

시장통 사람들 농악패와 어울려 흥겹게 춤을 추고 있다.  
한쪽에선 남자들이 씨름을 하고 있고, 아이들 쥐불놀이를 하며 신났다.  
뿔피리를 불며 춤을 추는 각시탈 가면, 말뚝이 가면이 다가와 희롱하듯  
뒤에서 안으면 뿌리친다. 자빠지는 말뚝이. 사람들 그 모습에 희희낙락.  
말뚝이 가면을 살짝 들어보이며 눈짓을 주면 각시탈도 고개를 끄덕인다.

개울쪽으로 길게 줄을 드리운 그네에 홀로 앉아 있는 덕혜.  
땅을 보며 한 숨을 쉰다.

(소리)            거 그네 참 탈 줄 모르네.

덕혜 고개를 돌리면 임호가 다가와 그네로 폴짝 뛰어오른다.  
휘청 거리는 그네. 앉아있는 덕혜 뒤에 서서 무릎을 굽실거린다.

덕혜            뭐하는 게야!  
임호            무서우면 내려가던가.

이미 그네는 크게 휘청거리며 앞 뒤로 오르락 내리락...  
임호가 굽실거릴 때마다 크게 공중으로 솟구친다.

덕혜            (눈을 가리며) 아이고 나죽네...  
임호            하하하! 이 나라 옹주마마가 알고보니 새가슴이었구나!  
덕혜            (눈을 뜨며) 어느 안전이라고 함부로...

그네 위에서 바라본 아름다운 풍경에 덕혜옹주 말을 잊지 못한다.

임호            자네도 참 불쌍한 사람일세.  
                그 큰 궁에 갇혀 이 좋은 세상을 못 보고 살았으니.  
덕혜            ...

그네가 더욱 솟구친다.

임호            이미 망한 나라일세... 수랏간 나인하나 사라졌다고  
누가 신경이나 쓰겠는가? 그 답답한 곳으로 돌아갈 바에야  
나랑 같이 구름처럼 바람처럼 자유롭게 사세.

덕혜            구름처럼... 바람처럼...

임호            어디 가서 웅주마마 이름만 팔지 않는다면  
내가 자네 입하나 책임 못지겠나?

덕혜            (미소) 정말 날 책임 질 수 있소?

임호            이르다 뿐인가?  
토끼같은 아이들까지 낳아주면 죽도록 일할 자신 있지.

덕혜            ... 그러고도 잘 살수 있겠소?

임호            얼굴 굳어진다.

그네 점점 속력이 줄면서 멈춰선다.

임호            (그네에서 내려온다) 또 무술대회 얘기로구나.

덕혜            그대의 말이 맞네. 망한 나라일세.  
결국은 돌이킬수 없다는 것도 잘 아네.  
... 그렇지만 말일세. 마지막 이 나라의 자존심을 위해 나서 주시게!  
사람들이 모두 자네를 인왕산 호랑이라고 부르는 것은...

굳은 얼굴로 돌아서서 가다가 멈춰선다.

시장통 아낙네들을 가리키며

임호            저들을 똑똑히 봐! 남정네들이 택견한답시고 밖으로 힘자랑 하고  
다닐때 저 여인네들이 자식들을 먹여 살렸네.  
이 시장바닥은 저들에게 지아비이고 나랏님이란 말일세.  
내가 지킬건 내 어미와 친구들을 잡아 먹은 그 뽀뽀한 나라가 아니라  
바로 여기 지금 이 자리란 말이야!

박무경과 전선출이 다가와

박무경            무슨 일인가?

전선출            거.. 정신도 온전치 못한 애를 데리고 왜 악을 쓰나?

임호            가세.

박무경            이.. 이봐. 임호.

임호            어서 가재두!

임호 머뭇거리는 박무경과 선출을 데리고  
덕혜를 외면한 채 가버린다.  
비단으로 만든 발싸개를 품에서 꺼내는 덕혜.  
한동안 말없이 비단을 만진다.

박무경            저리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전선출            (돌아보며) 그냥 가는데?  
임호              냅두게.  
박무경            그래도.. 정신도 온전치 않은데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임호의 얼굴이 어두워진다.

### 63. 임호 집 앞

사복 차림의 년자들이 임호의 집에서 나와 사라진다.  
그 광경을 발견한 덕혜 집으로 뛰쳐들어간다.  
마당에 굴러다니는 세간살이..  
황급히 뒷방으로 뛰어간다.

### 64. 동. 뒷방

엉망이된 방안으로 뛰어 들어와  
장롱안에 은밀하게 숨겨둔 보따리를 찾는 덕혜.  
찾는곳은 비어있다. 맥이 빠지는지 힘없이 주저 앉는다.

(소리)            이걸 찾는 게요.

덕혜 돌아보면 우치베가 보따리를 방안으로 던진다.

### 65. 대숲

여행용 가방을 들고 가는 우치베를 뒤로 한 채  
덕혜가 보따리를 가슴에 안고 앞서 가고 있다.  
대숲에 바람이 일렁인다.

우치베            그 사람에게 얘기는 했소?



덕혜 .....  
 우치베 아무리 그래도 신세를 졌으면  
 간다는 말은 해줘야 예의가 아니겠소.  
 덕혜 그쪽도 내게 예의를 논할 처지는 아닌 거 같은데.  
 우치베 (여행용 가방을 보며 피식 미소) 조심하십시오.  
 덕혜 무얼 말어요.  
 우치베 아무리 웅주신분이라 해도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사치 못하오.  
 덕혜 (뒤돌아 보며 쏘아본다) 어디 한번 가져가 보시지.

둘 사이에 긴장감이 감돈다.  
 우치베 여행용 가방을 열더니 검 한자루를 꺼낸다.  
 검을 스르릉 뽑으면 달빛에 번쩍... 덕혜 뒤로 물러선다.  
 대숲에 바람이 거세게 인다.

우치베 (검을 덕혜에게 겨누며) 이 칼에 묻은 피가 누구의 것인지 아시오?  
 덕혜 네 이놈!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우치베 그렇소.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생각했소.  
 그런데 누군가 보고 있었소. 하늘이 그 모든 걸 내려다  
 보고 있었단 말어요. 전쟁터에서 제 칼로 친구를 벤 자를 말어요.

우치베 칼을 치켜세우고 덕혜에게 빠르게 달려든다.  
 덕혜 보따리를 놓치며 뒤로 쓰러지면  
 대나무 몸통이 잘리며 칼을 든 자객이 쓰러진다.  
 아까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다. 이내 서너명이 하늘에서 검을 들고  
 우치베에게 달려든다. 칼 부딪치는 소리.  
 남자들과 검을 주고 받으며 빠르게 뒤로 물러서는 우치베.  
 나머지 남자들이 대숲에서 모습을 들어내며 우치베에게 달려든다.  
 물려서던 우치베 멈추는 가 싶더니 검을 곧추세우고 앞으로 난타해들어간다.  
 검을 받아쳐내며 남자들의 옆구리를 번개처럼 베어버리는 우치베.  
 대숲에 바람이 인다.

우치베 (보따리를 집어주며) 조국이니 천황폐하니 그따위 거짓말로  
 또 다시 내 친구를 베고 싶지는 않소.  
 덕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우치베 나라 때문에 친구를 죽게 만든 바보는 나 하나로 족하단 말어요..

덕혜와 우치베의 시선이 교차한다.

## 66. 시장통 푸줏간 앞

긴 노천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임호.

시장통을 빠르게 훑으며 누군가를 찾는다.

박무경           궁으로 돌아 갔겠지.

임호           (술을 들이키며) 누가 뭐래나.

박무경           우리가 너무 야박했네.

전선출           (분위기 파악 못 하고 술 들이키며)

                  지가 옹주마마라는데 뭘 걱정이야.

                  나라 망해도 왜놈들한테 섭섭지 않게 받을텐데.

임호           뭐라고?

전선출           말이야 바른 말이지.

                  어차피 그분들이야 나라가 넘어간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겠어. 죽어나는 건 예나 지금이나

                  우리 같은 힘 없는 백성들이지. 그동안 배알이 풀렸는데

                  에라이~! 망할 거 하루빨리 뒤집어져라! 똘!똘!똘!

임호           (벌떡 일어나며) 네 이놈! 매국노가 따로 없구나!!

전선출           (놀라 뒤로 벌러덩 자빠진다)

## 67. 종로통. 전차

달리는 전차 안에 보따리를 든 덕혜가 앉아있다.

전차원 덕혜를 훑쳐본다.

## 68. 이토 사저

창밖을 보고 있는 이토.

이토           대신들은 어찌하고 있는가?

하야시          몇몇이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본국에서 또 전문이 도착했습니다.

이토           한심한 것들. 재촉만 한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될 일이던가?

                  한 나라를 통째로 갖는 일이야, 절차가 필요한 법이거늘...

하야시           마루야마가 제대로 일을 처리해준다면 그깟 대신들 따위야  
 상관없지만.. 아무래도 동경에 있는 군부의 낚시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토            여우를 잡기도 전에 기르던 사냥개들이 주인을 물어뜯는다..  
                   (고개를 가로 저으며) 하야시 공사! 연회를 준비하게.  
 하야시           연회 말씀입니까?  
 이토            그래. 생사가 갈릴 연회 말일세.

이토의 얼굴에 사악한 미소가 드리워진다.

## 69. 전차

전차가 멈춰서고 승객들 탄다.  
 누군가 덕혜 곁에 앉는다.  
 다시 달리기 시작하는 전차.

(소리)           함께 가지지요.

덕혜 고개를 돌리면 바로 옆에 김구가 앉아있다.

## 70. 연회장

붉은 막을 배경으로 게이샤들이 공연을 하고 있다.  
 가브끼 의상에 짙은 화장을 한 게이샤들.  
 대신들 탐탁치 않은 표정으로 앉아있다.

이토            그동안 조약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까.  
                   우리 잠시 골치 아픈 일은 뒤로 미루고  
                   오늘은 마음껏 취해 봅시다.  
                   (잔을 따라주며) 자 학부대신께서도 한 잔 받으시고..  
 이완용          각하. 황송하옵니다.  
 대신1          (각하란 말에 얼굴이 구겨진다)  
 이토            (대신1에게 잔을 따르려 하는데 꿈적도 않는다)  
                   ... 이 자리가 불편하십니까?  
 대신1          학부대신! 난 그만 일어서겠소.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아닌가 보오.  
 이토            그러십니까? 이봐! (게이샤들에게) 그만 가신다 하니  
                   현관까지 정중히 모셔라.

게이샤들 수줍게 웃으며 대신1을 따라간다.  
붉은 막 뒤로 보이는 대신1과 게이샤들의 그림자.

대신1(소리)    무... 무슨 짓이냐!

붉은 천 뒤로 단도를 든 게이샤들이 대신을 난도질하는 모습이 그림자로 일렁인다.  
살육의 참혹한 장면. 앉아 있던 나머지 대신들 얼굴이 사색이 된다.

이토            (음산하게) 더 가실분 계십니까?

## 71. 달리는 전차

김구            남도로 내려가시지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덕혜            여기 남겠습니다.  
김구            들었습니다. 대마도주와...  
덕혜            아무말 마세요.  
                  어떤 것도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운명이라면 도망치지 않을것입니다.  
김구            (덕혜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덕혜            (보따리를 건네준다) 그 안에 아버님의 정표가 있습니다.  
                  가서 의병들에게 전하세요. 폐하는...  
                  당신들만큼 가슴아파하고 있다고요.  
김구            마마..

전차가 선다. 승객들이 내리고 새로 타는 승객들.  
그 사이로 마루야마가 얼핏 스쳐간다.  
맞은편 자리에 앉아 덕혜를 차갑게 바라본다.  
창밖으로 순사들이 달려오고 있다.  
김구와 덕혜 김새를 채고 눈짓을 교환한다.  
마루야마 김구가 안고 있는 보따리를 발견한다.  
김구 발로 마루야마 가슴팍을 내지르며 선수친다.  
욱하고 자리에 털썩 주저앉는 마루야마.  
김구 순사들을 밀쳐내며 보따리를 덕혜에게 맡기곤 반대편으로 민다.  
순사들과 마루야마 덤벼들면 틈을 주지 않고 그들과 접전을 벌인다.  
마루야마에게 옷 소매를 잡히자 온몸으로 버티는 김구.

김구                    옹주 마마! 어서요!

덕혜 망설이다 도망친다.

마루야마의 악력에 움작달작 못하던 김구가  
박치기를 멕이자 뒤로 주춤거리며 물러서는 마루야마.  
가슴팍에서 육혈포를 꺼내 겨눈다.

## 72. 시장통 푸줏간 앞

술을 마시던 임호.

날카롭게 울리는 총소리! 뭔가를 직감했는지...  
벌떡 일어나 총소리가 난 방향으로 뛰어간다.

## 73. 전차 앞

김구가 비호같이 전차에서 뛰어내린다.  
서로 반대편으로 도망가는 덕혜와 김구.  
마루야마 망설이는 사이..  
임호가 구경꾼들을 제치며 나타난다.  
그의 눈에 덕혜를 쫓고있는 마루야마가 쫓힌다.

## 74. 시장통

도망가고 있는 덕혜. 그 뒤를 쫓는 마루야마와 순사들.  
덕혜 도망가다 다른 사람과 부딪쳐 넘어진다.  
다시 일어나려고 하면 뒤에서 마루야마가 육혈포를 쏘려한다.  
방아쇠를 당기는 손. 펑! 하고 그 손을 치는 누군가의 발.  
육혈포 땅에 떨어지고 임호 마루야마의 오금을 밟는다.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는 마루야마. 임호를 밀어제키며 일어서려 하면  
다시 오금을 밟히고 풀썩 주저 앉는다. 움작달작 못하는 마루야마.  
시장통 사람들 몰려들고 일본인 상인들도 몰려든다.  
그 사이로 나타난 야마다와 시선이 마주치는 임호.  
순사들 달려와 임호를 붙든다. 마루야마 일어서서 임호의 복부를  
주먹으로 강타하더니 이내 팔꿈치로 얼굴을 가격한다.  
무자비하게 주먹을 퍼붓는다. 금세 피범벅이 되는 임호.

그러나 야마다를 보며 묵묵히 맞는다.

덕혜                그만해요!  
마루야마        (다가가 보따리를 빼앗는다)

보따리를 풀어헤치면 예상과 달리 아무것도 없다.  
육혈포를 주어 덕혜 머리에 겨누는 마루야마.

(소리)            멈춰라!

돌아보면 마차가 선다.  
그 안에서 장상궁과 지선 그리고 민영환이 내린다.

민영환            (칼을 뽑아들며) 마마! 어서 오르시지요!  
마루야마        (육혈포를 겨누며) 물러서라!

둘의 팽팽한 긴장감이 흐른다.  
사람들 틈에서 박무경과 전선출이 몽둥이를 집어든다.

전선출            (손에 침을 탁 뱉으며) 배알이 꼬여서 도저히 못 보겠네.

마루야마 돌아보면 시장통 사람들 분위기 심상치 않다.  
하나 둘 몽둥이를 집어들고 갈퀴를 집어드는 손.  
순사들 주춤 거리며 뒤로 물러선다.  
사람들 사이로 우치베가 나서며 임호를 부축한다.

우치베            마루야마. 그만하면 됐다.  
마루야마        ... 네 목숨은 곧 가져가 주마.

마루야마 순사들을 데리고 사라진다.  
장상궁의 도움을 받으며 마차에 오르는 덕혜.  
우치베의 부축을 받고 있는 임호와 시선이 교차한다.  
서서히 마차가 떠나고 서로 눈을 떼지 못하는 두 사람.  
야마다 인상을 쓰며 사무라이들과 사라지는데.. 그가 스친 남자를  
비추면 사람들 틈에 숨어 있는 김구가 보인다.  
품 속에서 뭔가를 꺼내는데... 국새다.

## 75. 개울가

임호를 업고 개울을 건너는 우치베.

우치베           마루야마는 본국에서 세 손가락에 꼽히는 유도왕일세.

임호             ...

우치베           그녀석이 주로 쓰는 기술은 업어치기이지.

한 번 잡히면 영낙없이..

임호             내게 그런 얘기를 해주는 이유가 뭐요?

우치베           ... 무술대회에 나가게.

임호             ...

우치베           세월이 지나면 자네도 알 걸세.

후회해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건너편 땅에 발을 디디다가 아린지 폴짝 주저 앉는 임호.

우치베 주머니에서 비단 발싸개를 꺼내 임호의 발에 묶어준다.

임호             자상도 하셔라 허허.. 고맙소.

우치베           내가 아니라 그사람에게 감사하게.

임호             ...

우치베           직접주고 싶었는데... 바람처럼 구름처럼 살 자신이  
없다 하더군... 아니 그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또한 자신의 운명이라 하더군.

돌아서서 가는 우치베.

임호             ... 물어볼게 있소.

우치베           (가다가 멈춰선다. 등을 보인 채)

임호             ... 그자를 꺾는다고 해도 나머지 두 사람이 남지 않소.

우치베           걱정 마시게.

한 사람은 죽었고..

다른 한 사람은...

임호             도망가고 있구려.

우치베           ...

임호             (돌아서서 가며) 만약 당신이라면 대접해 줄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 제법 신명이 났었을테니까.

사라지는 임호를 한동안 바라보는 우치베.

## 76. 옹주 처소- 밤

살을 사이로 덕혜와 이토가 마주하고 있다.

이토            세상구경은 잘 하셨소?  
덕혜            아무리 안달을 해도 국새는 찾을 수 없을것이요.  
이토            그깟 도장 따위에 역사의 거대한 물결이 바뀌리라 생각하오?  
덕혜            그러나 후세 사람들은 알게 될것이요.  
                  군주폐하의 국새조차 찍히지 않은 문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토            과연 옹주마마 답소이다.  
                  (일어서며 차갑게) 조약체결과 동시에 본국으로 떠날것이요.  
                  채비를 하시오.  
덕혜            아직 끝나지 않았소.  
이토            ....?  
덕혜            무술대회는 약조대로 열게 해주시오.  
이토            그런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소이다.  
                  옹주는 나와 함께 가야 하오.  
덕혜            (각오한 듯 고개를 끄덕인다)

이토 냉소어린 미소를 띠며 사라진다.  
장상궁과 지선이 들어와 예를 올리며 눈물 짓는다.

장상궁        마마...  
덕혜        아무말도 말게.  
지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사옵니다.  
                  시종무관장 어르신께서 도와주시기로 했습니다.  
                  궁을 벗어나...  
덕혜        (고개를 가로저으며) 기다릴게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 해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그것이 이 나라의 옹주인 내가 해야할 일이야.  
장상궁        마마...  
덕혜        장상궁. 부탁이 있네.

## 77. 임호 집 마당- 낮



강아지에게 혼쭐이 난 채 도망가는 아기 호랑이,  
툃마루에 앉은 있는 임호의 발치에 숨는다.  
나가 싸우라는 듯 아기호랑이를 발로 툃툃 밀쳐내는 임호.  
그러나 툃마루 밑으로 계속 기어들어갈뿐... 임호의 얼굴이 어두워진다.  
낯술에 취한 춘봉이 힘없이 들어와 월도를 내팽개친다.  
툃마루에 벌러덩 누워버린다.

임호            궁에 가신거 아니었소?  
춘봉            더 이상 나오지 말라더라.  
임호            누가 말이요?  
춘봉            누구긴 왜놈들이지.  
                  대안문도 그놈들이 이젠 지킨다고 하더군.  
                  도둑놈이 대문을 지켜준다고? 기가 차서 허허..  
                  (방에 들어가며) 웅주마마까지 흠쳐가는 도둑놈들이  
                  지키긴 뭘 지켜.  
임호            그게 무슨 소리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버리는 춘봉.

임호            (버럭) 아! 그게 뭘 소리난 말이요!!

춘봉(소리)      공양미 삼백석에 팔려간 심청이가 따로 없구나.

임호 일어나 방문을 벌컥 열면 춘봉 이미 골아떨어져 있다.  
그때, 박무경과 전선출이 허겁지겁 달려온다.  
박무경이 입고 있는 군악대원 복색이 임호의 눈에 쏙힌다.

박무경            이보게 임호!  
                  천우신조일세!!

## 78. 파고다 팔각정- 아침

군악대에서 나팔을 불고 있는 박무경.  
복색이 마음에 드는지 한껏 들떠있다.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임호와 전선출.

전선출            저놈 입이 귀에 걸렸네 그려.

임호               (풀이 죽어있다) 그만 가세.  
 전선출           (눈치보며) 자네도 들었나? 처지가 참 딱하게 됐다고 그러드만.  
 임호               (가며) 나 바쁘이  
 전선출           왜놈땅에 불모로 잡혀가서 어찌 살건지...  
                     이봐 임호. 내 얘기 듣고 있는 겨?

임호 묵묵히 앞서 간다.

## 79. 몽타주- 밤

스크린 위에 펼쳐진 무성영화. 짝찬 좌중.  
 나비넥타이를 멘 전선출 옆에서 신나게 해설중.  
 옆에 앉은 변사 주눅이 든 채 선출을 쬼려보고 있다.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신이 난 선출 더 열을 낸다.

군악대원들이 종로통을 행진한다.  
 그 속에서 신나게 나팔을 불고 있는 박무경.  
 인파속에서 이쁘장한 여자를 보고 옷깃을 추켜 세우며  
 윙크를 날린다. 신났다.

가로등 위에서 전기가설원 복색을 한 임호가 수신호를 한다.  
 아래에서 관리원이 전원을 넣자 환하게 밝혀지는 전등.  
 땀을 닦으며 뿌듯해 하는 임호. 그의 눈에 불이 환하게 켜진  
 황성시내가 잠힌다. 경운궁이 보이자 이내 어두워지는 임호의 얼굴.

## 80. 옹주 처소

궐담으로 난 창호문을 열고 덕혜가 밖을 바라본다.  
 담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있는 불꺼진 가로등.

지선               (문들 닫으며) 마마. 날이 춥사옵니다.  
 덕혜               (그대로 놔두라는 손짓)

(Flashback) 임호       자네도 참 불쌍한 사람일세.  
                               그 큰 궁에서 갇혀 이 좋은 세상을 못 보고 살았으니.

불꺼진 가로등에 서서히 전기가 들어오고 있다.

임호    그 답답한 곳으로 돌아갈 바에야 나랑 같이 구름처럼 바람처럼 자유롭게 사세.

덕혜            구름처럼... 바람처럼...  
지선            예? 뭐하 하셨습니까? 마마?

가로등에 불이 환하게 들어온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덕혜의 얼굴에 연민이 묻어난다.

(인서트)- 어둠속 홀로 불을 밝히고 있는 가로등 불빛 아래로  
하얀 눈이 쓸쓸하게 내리기 시작한다.

## 81. 시장통 푸줏간 안- 밤

박무경과 전선출이 마주 앉아 술을 마시고 있다.  
전선출을 가득 멘 임호가 눈을 털며 자리에 털썩 앉는다.

박무경            이제야 일이 끝난게야?  
임호                요새 전깃불을 찾는 곳이 많네.  
전선출            앞으로 밥은 안끓겠네 그려.  
임호                ....  
박무경            ....  
전선출            ....

말없이 술만 마시는 세 사람.

박무경/전선출 (동시에) 내가 생각해...!!  
박무경            먼저 하게.  
전선출            자네가 먼저 하게.  
박무경            (냉큼 술 마시며) 난 할 말 없네.  
전선출            (술 마시며 눈치만) 나도.  
임호                일들은 마음에 드는가?  
박무경            (웃기를 추켜세우며) 세상에 이렇게 신나는 일이 없네 그려.  
                      내 좋아하는 것 마음껏 불어제끼고 있는 폼은 폼대로 다 나니.  
                      딱 내가 원했던 일일세. 그려~~~ 허허! 안 그런가 선출이?  
전선출            그럼! 내가 (손으로 입을 치며) 요걸 내지르는 순간,

좌중이 오줌을 찢끔거리며 죽어나는데.. 하! 그런 재미가  
 또 세상에 어디있겠나? 돈도 짹짹하게 들어오니  
 정말 임호 말대로 신문물에 우리의 살 길이 있었네 그려 허허!!  
 박무경 (선출이 옆구리를 찢으며) 자넨 일이 맞지 않나?  
 임호 좋네. 나도.  
 박무경 어째 신이 안 나는 거 같아 그러이.  
 임호 (술만 푼다)

그때 덩수룩한 물골의 털보가 들어온다.  
 임호를 보고는 얼굴을 구기며 멀찍히 떨어진 곳에 앉는다.

털보(소리) 어이. 덕구야. 여기 국밥 하나 가져온나..  
 전선출 (고개 돌리며) 어이쿠. 왕십리 털보 아닌가?  
 박무경 저 사람 큰 일날 사람이네.  
 사대문안에는 얼씬도 말랬더니...

임호와 털보 잠시 눈이 마주친다.  
 털보 무시하며 국밥을 우적우적 먹는다.

박무경 아무래도 내일 무술대회에 나갈려고 왔나보네.  
 전선출 정신이 나갔어도 완전히 나갔구만.  
 이 판국에 무술대회라니... 허파에 총알구멍이라도 나려고  
 저러는 게야? 저러다 정말 황천길 타지.  
 박무경 (일어나며) 그만 일어나세. 괜히 옆에 있다 우리까지...

탁! 하고 열리는 문. 사무라이들이 들어온다.  
 덕구 부모들 고기를 손질하다가  
 그들을 보고 뛰어가 꾸벅 인사를 한다.

사무라이1 고기하고 술 좀 넉넉히 가져와.  
 덕만 (병어리.. 손짓으로 뭔가를 설명하는데.. )  
 사무라이2 뭐라는 거야 이 병신이?  
 사무라이1 (앉으며) 술 가져오란 말 몰라?  
 덕구엄마 (외상 장부를 가져와 보여주며 굵신굵신)  
 사무라이2 돈 내라는 얘기 같은데?  
 사무라이1 (발끈하며) 아니 이것들이 미쳤나?  
 (의자를 발로 차며) 안 쫓아내고 계속 장사하게 해줬더니!

덕구                    먹었으면 돈을 내야죠!  
 사무라이1            어쭙 요 똥개 시키가! (덕구 먹살을 잡는다)  
 덕만                    (땅에 무릎 꿇으며 빈다)  
 임호                    (일어서서 나서려는데..)  
 털보                    (나서며) 아저씨가 그랬제.  
                           이럴땐 안경 씌워줘야 된다고.  
 덕구                    (엄지와 검지로 사무라이1의 눈을 찔러버린다.)

비명소리!

## 82. 푸줏간 앞

와장창 깨지며 사무라이 하나가 튕겨져 나온다.  
 검을 뽑아들며 사무라이들이 뛰쳐나온다.  
 손을 탁탁 털며 뒤따라 나오는 털보.  
 일본 상인들 눈치를 보던 시장통 사람들 몰려든다.

털보                    이 쪽바리 시키들. 손님인네 살살거리며 와서는  
                           이 나라 주인행세를 해? (장작 패듯 손에 침을 탁 뱉는다)  
 사무라이1            (쓰라린 눈을 부비며) 니놈이 정녕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나.  
                           주인이 바뀐지도 모르고 짓는 개는 죽여야지!

사람들 틈에서 묵묵히 그들을 보고 있는 임호.  
 덕구 임호와 눈이 마주치자 시선을 피해버린다.  
 임호의 얼굴이 어두워진다.

## 83. 골목

눈 위로 난 세사람의 발자국이 보인다.

박무경                (조심스럽게) 저러다 정말 죽는 거 아녀?  
 전선출                죽든 말든 내버려 두시게.  
                           임호 말이 맞네. 괜히 나섰다가 우리만 이용당하고  
                           임오년 딱 그쪽일세. 니미럴. 누굴 바보천치로 아나.  
 임호                    고놈이 내 눈을 피했네.  
 박무경                갑자기 그게 뭘 소린가?  
 임호                    꽤 씹하지 않나?

전선출           객쩍은 소리 말고 어디가서 한 잔 더 하자고.

발길을 돌려 뛰어가는 임호.

전선출           저.. 저사람 왜 저러나?  
박무경           (얼굴을 구기며) 몰라서 묻는 게야?  
                  가슴에 천둥이 치는 게지.

## 84. 푸줏간 앞

이미 싸움이 끝난 듯... 검에 베인 팔을 잡고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털보.  
사무라이1 눈짓을 주면 사무라이2가 털보 뒤에서 칼을 서서히 든다.  
사람들의 비명. 목을 베려는 사무라이2. 그때 전광석화 같이 뒤에서  
붕~ 날아와 그의 어깨를 밟고 한쪽 발로 이마를 날려버리는 발길질. 임호다!  
사무라이들 검을 들고 달려든다. 이크~! 에크~! 달려가 다시 한번 붕 날으며  
두발 낭상으로 사무라이 둘의 턱을 날려버린다. 야마다 나타나면..

사무라이1       야마다상! 보셨소! 저놈이..

쩍! 하고 그의 안면을 강타하는 옹골진 주먹.  
뒤로 나가떨어지는 사무라이1. 성큼 다가서는 임호.  
칼을 뽑아든 사무라이들 대여섯이 임호를 막아선다.  
그것도 잠시 임호 거침없이 난타해들어간다.  
성난 호랑이처럼 무서운 기세에 사무라이들 나가떨어진다.  
혼자 남은 사무라이1 벌벌 떨며 검을 마구 휘두르다 제풀에 지쳐 쓰러진다.  
사무라이1의 목살을 잡고 면상을 노려보던 임호 얼굴에 분노가 인다.

임호           (턱구를 가리키며) 저 아이를 뭐라 불렀느냐?  
사무라이1     .. 또.. 똥개...  
임호           (아구창을 한대 먹이며) 저 아이의 이름은 턱구라 한다.  
사무라이1     (입가에 피범벅이 되서) 사.. 살려주십쇼..  
임호           일전에 날 뭐라 불렀느냐?  
사무라이1     .. 똥개.. 아니.. 인왕산 호랑이...

임호 허공에 손날을 곧추 세우면..

박무경           임호! 안 되네!

박무경과 전선출이 사람들 틈에서 뛰쳐나온다.

전선출           주.. 죽일셈인가? 도끼질을 쓰게 되면 죽네.  
박무경           참게나. 죽여선 안 되네.

임호 손을 부르르 떨다가 분노를 접은 듯 놓아준다.  
박무경과 전선출 주저 앉아 있는 털보를 챙긴다.  
덕구를 쳐다보는 임호. 덕구 고개를 떨군다.  
덕구에게 다가가 무릎 꿇고는 똑바로 쳐다본다.

임호            날 똑바로 보거라! 내가 누구더냐?  
덕구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  
임호            누구더냐!  
덕구            .. 인.. 인왕산 호랑이...  
임호            난 그냥 임호일뿐인것이야!  
                호랑이도 뭇도 아니란 말이다!  
                그것이 부끄럽다면 더 이상 아저씨 보지 말거라!

임호 일어나 사람들을 뚫고 나가는데...  
야마다를 발견하자 가던 길을 멈춘다.

야마다          그럼 시장에서 일하는 조선인들이 내쳐져도 종단 말이나?  
임호            (야마다의 먹살을 움켜쥐며) 약조파원 이제 필요없다.  
                이 임호의 주먹으로 지킬 것이다. 누구라도 이곳사람들  
                털끝이라도 건드리는 날에는 이 손으로 숨통을 끊어놓을게야.  
야마다          ... (졸아서) 이.. 이럴 순 없네... 내 금화를 받지 않았나..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구...

임호 콧방귀 꾸며 야마다를 씨래기 더미에 처박고는 사라진다.

## 85. 감투바위

어둠속에서 함박눈이 내리는데도 임호가 품을 땀고 있다.  
그의 얼굴에 비오듯 땀이 흐르고 있다.  
이를 악물며 더 거세게 품 땀으며 발질을 찬다.  
떨어져서 보고 있던 전선출 말리려 하는데

박무경 전선출의 어깨를 잡으며 막는다.

박무경           이눔아. 아무리 돈에 환장했어도 임호 얼굴에 똥칠을 혀?  
                  그 금화가 목에 넘어가데? 얼른 토해내지 못하겠어!  
전선출           (시침때며) 못하네! 난 임호가 시킨데로 한 죄밖에 없으이!

## 86. 인왕산 숲속

금화 주머니가 누군가의 손에 던져진다.  
상인 헤헤거리며 주머니를 까면 금화가 번쩍인다.  
말뚝이 탈을 쓴 사내가 상인이 가져온 께깍을 속을  
확인하곤 각시탈을 쓴 남자에게 고개를 끄덕인다.  
각시탈을 쓴 남자 께깍에 다가와 물건을 꺼내면... 육혈포다.

## 87. 경운궁 회의장- 아침

대신들 양쪽으로 앉아 있고,  
외무대신 박제순과 이토가 조약문을 서로 교환한다.  
이완용이 박수를 치자 모두 일어나 박수를 치는 대신들.  
이토 만족한지 하야시 공사를 보며 미소를 짓는다.

## 88. 함령전

고종이 눈을 감은 채 앉아있다.  
덕혜옹주와 황실 가족들이 모두 모여있다.  
민영환과 내시, 상궁, 무수리들 모두 엎드려 흐느끼고 있다.  
입술을 깨물고 있는 덕혜의 눈가에 한줄기 눈물이 흐른다.

## 89. 임호 집

방안에서 아침을 먹고 있는 임호일행.  
춘봉은 벽만 바라본 채 누워있다.

박무경           아버님...  
춘봉           너들 끼리 먹으래두.  
전선출           (눈치보며 먹는다)



털보 (춘봉을 억지로 일으켜 손가락을 쥐어주며)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싸웁죠.

춘봉 (눈물을 찢끔거리며) 너희놈들은 나라가 왜놈들에게  
넘어간 마당에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

일동 ....

춘봉 (버럭) 이놈들아! 여기 왕십리 털보를 보거라.  
칼침을 맞고도 무술대회에 나간다 하지 않더냐!  
아랫대놈들은 이렇게 펄펄 살아있는데  
(임호를 보며) 윗대놈들이 나라망신을 시키다니!  
그리고도 너희놈들이 무인들이라 할 수 있느냐!!

탁! 하고 손가락을 놓는 임호. 춘봉 쫓다.  
임호 일어나 전기가설원 복색을 들고 밖으로 나간다.

춘봉 (밥을 먹으며) 그놈 성깔하고는...

## 90. 동. 방 밖

강아지에게 쫓기고 있는 아기 호랑이.  
툇마루에 앉아 보고 있는 임호.

박무경(소리) 너무 하시네요. 윗대에 택견꾼이 저희뿐이랍디까?  
전선출(소리) 그러게 걸핏하면 임호만 가지고 그래.  
춘봉(소리) 이놈들이 정말... 인왕산 호랑이? 흥.  
인왕산 강아지가 그것보단 더 낫겠다.

도망쳐온 아기 호랑이를 품에 안으며  
다정하게 쓰다듬는 임호.

## 91. 대숲

아기 호랑이를 안고 가는 임호.  
뒤에서 따라오는 세 사람.

털보 (임호에게) 마음에 담지 말게.  
박무경 아저씨 속이 많이 상해서 그러는 걸세.  
전선출 아들이 하나야 둘이야 참내...

임호 아기 호랑이를 수풀에 놓아준다.

박무경 보내줄려고?

임호 호랑이는 호랑이 다워야지.  
강아지처럼 살면 그건 호랑이가 아니지.

아기 호랑이 가지 않고 뒤를 자꾸 돌아본다.

임호 (돌맹이를 들며) 제 에미가 왜놈들 포수한테 잡혀 죽을 때  
이놈은 수풀 속에 숨어있었다네. 나서지 않았기에 용케 살아남은  
게지. 에미 잃은 짐승이 하도 슬피 울길래 데려 온게 실수였어.

돌맹이를 던지면 후다닥 도망가다  
다시 되돌아오는 아기 호랑이.

임호 (다시 돌맹이를 들며) 사람 손에 길들여지다 보니 이젠 강아지보다  
못하네. 녀석도 알겠지. 후회해도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숨어있었던 것이 얼마나 창피한일인지.  
제 자식이 위기에 처할 때 숨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네.

임호 돌맹이를 던져 아기 호랑이를 정확히 맞춘다.  
날카롭게 울부짖으며 괴로워하는 호랑이.  
입가에 피가 흐른다. 임호를 노려보다가 대숲쪽으로 사라진다.

텔보 (임호에게) 나오지 말게.  
개죽음 당하는 건 나 하나로 충분하네.

박무경 (임호에게) 나도 가지 않을걸세.  
난 지금 내 일에 만족하네.

전선출 (임호에게) 자네가 아무리 청해도  
황천길 길동무 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이..

임호 (통명스럽게) 난 나갈 생각 없네.

임호 유유히 걸어간다.  
예상치 못한 임호의 반응에 당황하는 일동.

## 92. 인천 항

부둣가에 놓여진 여행용 가방.  
그 옆으로 누군가가 서서 망망대해를 바라보고 있다.  
거세가 몰아치는 겨울 칼 바람에 그의 옷이 펄럭인다.  
멀리서 탐승을 알리는 뱃고동 소리.  
뒤를 돌아보는 우치베의 얼굴.

### 93. 종로통- 황혼

관리원 위에 대고

관리원            어이~! 이 봐! 저녁 들고 해아지!

카메라 올라가면 가로등 위에 임호가 매달려 있다.

임호            (전선줄만 묵묵히 교체한다)  
관리원        원 사람도...  
                  (인부들 보고) 가세. 황소고집일세.  
                  내려왔으면 벌써 내려왔지.  
인부1        나리.. 어디로 가실겁니까요?  
관리원        뭘 소린가?  
인부2        이왕 드실거 유각골로 가시죠?  
관리원        유각골?  
인부1        유각골 안터바닥에서 왜 있잖습니까?  
관리원        (잠시 생각하다 소스라치게 놀라며)  
                  이 사람들! 다들 큰일날 사람들이군  
                  누가 무술대회를 보러 거길 간단 말인가?  
인부2        하긴 나오는 놈이 없겠죠?  
인부1        지미렐.. 나라도 나가서 왜놈들 모가지를  
                  확~! 뿔아버렸으면 속이 다 시원하겠네 그러.  
                  가세. 에이... 탁주나 한 사발 하세.

인부들 떠나면 가로등 위에서 분주히 전선을 교체하던  
임호 뚝 멈춘다. 붉은 석양이 그의 얼굴에 일렁인다.

### 94. 푸줏간 안

덕구가 고기를 나르고 있는데  
창 밖으로 털보가 지나가는 것이 보인다.

## 95. 육의전 시장통

털보가 시장통을 지나가면  
일본 상인들 밑에서 일하던 시장통 사람들  
하나 둘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내민다.  
그 모습을 본 야마다 눈빛이 번뜩인다.  
덕구 달려와 털보를 붙들며

덕구                아저씨 정말 나가세요!  
털보                (미소 띠며 고개 끄덕)  
덕구                임호 아저씨네요?  
털보                (미소만)  
덕구                (붙잡으며) 안 돼요! 가면 죽는단 말이에요!

털보 덕구를 토닥여주고는 길을 내친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시장통 사람들 눈가에  
뭔가 울분이 치솟는 듯... 그러나 이내 일본주인이  
옆에서 눈을 부라리자 하던일을 꾸역꾸역 한다.

## 96. 함령전 앞

군인들이 호위하는 마차가 도착한다.  
이토가 마차에서 내려 목례조차 하지 않고 거만하게 주위를 둘러본다.  
고종에게 마지막 예를 올리고 일어나는 덕혜옹주.  
장상궁과 무수리들 울먹이며 옹주가 가는 길을 막아선다.  
이토 눈짓을 주자 군인들 그들을 한쪽으로 몰아세운다.  
민영환의 안내를 받으며 마차에 오르는 덕혜.  
마차 울먹이는 사람들을 뒤로 한 채 떠난다.

## 97. 육의전 시장통

푸줏간에서 도망가는 덕구를 말리는 엄마.  
덕구 울며 붙며 도망가려 애쓴다.

그런 덕구를 달래며 억지로 안고 있는 병어리 엄마.  
아버지 덕만이 덕구를 무섭게 쏘아보자, 그 서슬에 기가 죽는데...  
쫓그리고 앉아 등을 보이는 병어리 덕만. 업히라는 눈짓을 보낸다.

득만 일본 점주에게 욕을 먹고는  
신경질적으로 생선 대가리를 쳐내고 있는데  
그의 눈에 덕구를 업은 덕만이 가고 있는 것이 보인다.  
득만 잠시 생각하는 가 싶더니 생선칼을 도마에 내리찍고는  
일본점주를 밀쳐내고 가게 밖으로 나가버린다.

당황한 야마다와 일본상인들을 밀쳐내며  
덕만과 합류하는 시장통 사람들.  
덕만의 뒤로 시장통 사람들 점점 불어난다.  
결연한 그들의 눈빛. 어디론가 향하는 그들의 발걸음.  
눈발이 날리기 시작한다.

## 98. 달리는 마차 안.

서로 마주앉은 덕혜옹주와 이토.

덕혜	(창 밖으로 보고는) 사대문을 벗어 나고 있지 않소.
이토	인천항에 우리 군함이 기다리고 있소이다.
덕혜	나와의 약조를 잊은게요.
이토	조약은 이미 맺어졌소.
	내 임무는 여기 까지요.
덕혜	날 귀국의 나라로 데려가는 일이 남았지 않소.
이토	지금 가고 있지 않는가?
덕혜	산채로 데려갈지 아니면(은장도를 꺼낸다)
이토	나를 협박하는 겐가?
덕혜	너희놈들이 이 나라에 한 협박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토	(쪽문에 대고 마부에게) 말을 돌리거라...
	(덕혜에게) 정녕 그 끝을 보고 싶은가? 조선의 그 초라한 몰골을...

덕혜를 보는 이토의 입가에 경멸이 서려있다.

## 99. 유각골 안터 바닥

해가 인왕산 너머로 지고 있다.  
이토와 덕혜일행이 황량한 공터에 서 있다.  
뒤로 하야시, 마루야마를 위시한 일본무인들이 도열해 있다.  
조약에 가담한 이완용을 비롯한 대신들도 보인다.

하야시            각하!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사옵니다.  
이토             (비웃음 서린) 옹주. 그만 잡시다.  
                    더 이상 비참한 꼴을 두고 볼 수 없소이다.  
덕혜             ...  
민영환           (부복하며) 옹주마마.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야시           그건 안되요! 시종무관장은 자격이 없소.  
민영환           불한당 같은 놈들! 감히 그 더러운 입으로  
                    자격을 논하다니! (검을 뽑아드는데)

착검한 군인들 순식간에 영환의 목에  
총을 겨눈다. 일순 긴장감.

하야시           이 자의 무장을 해제시켜라.  
민영환           (검을 뽑으려 한다)  
(소리)           집어 넣으시게!

돌아보면 무장1이 걸어오고 있다.  
이토의 눈꼬리가 올라간다.  
덕혜의 눈이 점점 커진다.  
무장1의 뒤로 젊은 무장들이 구름처럼 몰려든다.

무장1            (영환의 손을 잡으며) 내게 양보하게.  
                    (마루야마를 보고는) 저놈은 나와 청산해할 빛이 있네.  
민영환           (모든 걸 알겠다는 듯... 마주잡은 손을 꾸욱 잡는다)  
무장1            (부복하며) 옹주마마. 소신이 웅졸하여 폐하께 돌아오는데  
                    너무 오랜 세월을 허비하였나이다.  
옹주             (일으켜세우며) 고맙소! 내 할말이 정녕 없소이다.  
무장1            (뒤돌아) 무얼하는게야! 옹주마마를 뵈지 이게 얼마만인가!  
                    모두 예를 갖추시게!

수십명의 무장들 부복하며 “옹주마마께 문안드리옵니다~!!”  
덕혜 감정이 복받쳐 울먹인다.

하야시            각하.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옵니다.  
이토             보는 눈이 더 늘기 전에 여기서 그만...

그때 반대편 언덕에서 고향소리.  
팽과리와 북치는 농악대 소리.  
시장통 사람들과 황성시내 백성들 몰려온다.  
덕만의 무등을 탄 덕구도 보이고 징을 치는 득만도 보인다.

하야시            이... 이런 낭패가..

반대편에선 털보가 나타난다. 그 뒤로 군악대가 행진을 하며  
공터로 뒤따라 들어온다. 나팔을 불던 박무경 털보를 보고 웅크.

인파들 틈을 비집고 들어와 탁자를 놓고  
확성기 마이크를 놓으며 해설을 준비하는 전선출.

어둡던 공터에 갑자기 환한 전깃불이 들어온다.  
발전기를 돌리고 있는 인부들에게 수신호를 하며 방긋 웃는 관리원.  
안절부절 못 하는 하야시공사. 이토의 얼굴에 경련이 인다.

하야시            가.. 각하.. 군대를 투입하시는 게..  
이토             미쳤나? 이미 판은 시작됐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다신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싹을 완전히 잘라놓아야 해. 마루야마!  
마루야마        하이!  
이토             자신있나?  
마루야마        저희 무도관 수련생들은 본국에서도 최고의 고수로  
                      뽑히는 자들이옵니다. 저들과는 적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토             좋아. 단! 살아서는 이곳을 나가게 해서는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나?  
마루야마        바라던 바입니다.

## 100. 동. 대접

구름처럼 모여있는 사람들. 춤을 추는 광대들.  
각시탈을 쓴 광대 탈을 반쯤 벗으며 동정을 살핀다.

가슴에 있는 육혈포를 확인하며 누군가에 눈짓을 한다.  
말뚝이 탈, 스님탈... 탈을 쓰고 있는 장정들 모두 고개를 주억거린다.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곳은 이토와 을사오적이 착석한 연단.  
공터 안으로 젊은 무장과 일본 무인이 나와 대접을 벌인다.

전선출(소리)    아! 전광석화 같은 발길질!  
                  네! 왜놈의 가슴팍에 꽂힙니다!

## 101. 가로등 위.

유각골 근방에서 군중들의 환호성이 들린다.  
꿈적도 않고 전선만 교체하고 있는 임호.  
묵묵히 일만하던 임호의 손이 갑자기 뚝 멈춘다.  
품속에서 뭔가를 꺼내 물끄러미 응시한다.  
그의 손에 비단 발싸개가 곱게 말려져있다.  
수놓아진 이화(李花) 무늬를 만지는 손길.

(소리)            미친놈! 일 못해 죽은 귀신이 붙었더냐!

아래 내려다 보면 춘봉이 올려다보고 있다.

## 102. 유각골 근처

산길을 걷고 있는 두 사람.  
멀리서 군중들의 환호성.

춘봉            (임호의 눈치를 살피며) 용케도 참았구나.  
임호            참긴 뭘 참소.  
                  얼릉 집에 갑시다. 뱃가죽이 등에 붙겠소.  
춘봉            정말 안 갈테야?  
임호            허허! 아비 맞소? 안 갈거요! 안 간단 말이요!  
춘봉            ... (멈춰서며) 고맙다.  
임호            (어리둥절)  
춘봉            가면 죽는다. 절대 가서는 안 돼.  
                  네 어미도 죽고 너 하나 키우며 홀아비로 늙은 애비다.  
                  약속해라. 절대 가지 않겠다고. 니놈 없으면 나도 헛개비다.  
임호            (돌아서면 눈물이 맺힌다) 걱정 붙들어 매요.



죽은 엄니가 와서 끌고가도 저 죽을판에선 안 놀테니까...

춘봉 (돌아서 가며) 니 어미처럼 불쑥 가버리면  
정말 나 껌데기만 남는 겨...

임호 밥 때 한 참 지났는데 어딜 가요!

춘봉 난 막걸리가 밥이여.. 같이 가?

임호 싫소... 집에가서 잠이나 잘테요.

성큼 성큼 가버리는 임호.  
춘봉도 돌아서 가는데.. 자꾸 눈물이 난다.

### 103. 유각골 안터바닥

군중들의 안타까운 함성.  
젊은 무장이 피범벅이 된 채 실려나간다.  
그 뒤로 이미 모두 패한 듯 부상자가 쓰러져 있다.  
박무경 야유하듯 나팔을 불어제긴다.  
여기저기서 야유를 보내는 사람들.

전선출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어찌 같은 무인들끼리 살수를 쓴단말입니까!  
이것은 대접이지 도살장이 아니지요!  
제발 무인으로써 자존심들을 지키시오!  
상대방의 생명을 우습게 알면 그 화가 도리어...

전선출에게 나자빠지는 젊은무장.

전선출 괜찮는가?

피를 울켜 쏟으며 혼절한다.

민영환 (무장1에게) 이만 거두시게.  
이정도면 됐네.

무장1 아직 끝나지 않았네.

민영환 뜻을 보였으니 됐으이.  
계속 겨루기엔 실력차이가 너무 난단 말일세.

무장1 저길 보게.

보면.. 털보가 일본무인들과 합을 겨루고 있다.  
부상 때문에 밀리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  
밀리는가 싶더니 이내 확 밀어제키며 공중에서  
한 바퀴 돌며 상대방 턱을 날려버린다.  
폴썩 쓰러지는 일본무사. 숨 죽여 있던 인파들 일제히  
두 손을 들며 환호한다. 이토 마루야마에게 눈짓.  
마루야마 공터로 나온다. 털보 숨을 고르더니  
이내 달려가 마루야마의 기도를 내질른다.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봉 날라올라 공중에서 발놀림.  
순간, 그의 목을 낚아채 바닥에 메다 쫓는 마루야마.  
비실거리며 겨우 일어나는 털보, 번개처럼 그의 옷깃을 잡는 마루야마.

무장1            안 돼!

그 소리가 채 끝나기 무섭게  
털보를 업어치기로 크게 메다쫓는다.  
일순 봉 뜨는 가 싶더니 퍽! 하고 바위위에 떨어진다.  
피투성이가 되어 비실거리며 일어선다.  
덕구가 달려와 털보에게 안기는데.. 털보 비실비실 웃더니  
이내 쓰러져버린다. 바위위에 흥건히 흐르고 있는 핏물.  
무장1 뛰어오른다. 마루야마와의 접전.  
마루야마 복부를 강타하는 무장1의 주먹.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무장1을 훌쩍 들어올리는 마루야마 괴력!  
사람들의 안타까운 탄성! 그 짧은 순간 민영환과 무장1의 시선이 교차한다.  
몸이 떨어지는 가 싶더니 마루야마의 무릎이 무장1의 허리를 꺾어버린다.  
바닥에 뒹구는 무장1. 민영환 뛰어가면 이미 죽어있다.

## 104. 임호 집

춘봉 마당으로 들어와 텃마루에 앉으며  
불꺼진 방안에 대고

춘봉            이 놈아! 그새 잠들었냐.  
                 초저녁부터 무슨 잠이 그리 많은게야...

텃마루에 앉아 긴 한숨을 쉬는 춘봉.  
그의 깊게 패인 주름에 자꾸 눈물이 번진다.

(인터컷)- 방안에 임호는 보이지 않는다.

춘봉(소리)      임자... 자네 닭아 고집이 황소고집일세.  
기어이 자네처럼 제 분을 못 삭히나 보이.

## 105. 유각골 안터바닥

군중들 더 이상 나서지 않고 모두 조용하다.  
간간히 들리는 부상자 신음소리.

하야시          각하. 끝난 듯 하옵니다.  
각하          (흡족한 듯) 역시.. 너무 싱겁군 그래.  
                (옹주에게) 그대의 고집이 결국 아까운 목숨들만 잃게 만들었구려.  
                그만 떠납시다. 인천에서 군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소.  
옹주          (눈가가 젖어있다)

마차에 오르는 옹주. 문이 닫힌다.  
사람들 하나 둘 풀이 죽어 일어서고...  
덕구 죽은 털보가 거적대기에 실려나가자 울며 매달린다.  
그때 누군가 덕구의 손을 잡는 이. 임호다!  
임호 덕구를 데리고 공터 중앙으로 걸어간다.  
술렁이는 장내. 박무경 있는 힘껏 나팔을 불어제긴다.  
전선출도 마이크를 다시 잡고는!

전선출          드디어 인왕산 호랑이 임호선생께서 나타났셨습니다!  
                여러분! 선생께서 저 불한당들을 메다꽃기 위해  
                그동안 심심산골에서 혹독한 수련을 이겨내셨다 합니다.  
                번개같은 발질과 호랑이 어금니 같은 손등으로  
                그들에게 진정한 대접이 무엇인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임호를 발견한 덕혜 이토를 밀치며 마차에서 내린다.  
임호 덕혜옹주를 발견하고는.. 둘의 시선이 한동안 교차한다.  
임호 비단 발싸개를 짚신 신은 발등에 짚끈 동여맨다.  
공주도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다.  
임호 마루야마를 노려보며 공터 중앙으로 나간다.  
마루야마 임호를 경계하며 자세를 잡는다.

이토           마루야마! 멈춰라!  
                  이미 모든 대결은 끝났다.  
 임호           대접하게 해주시오.  
 이토           내 말을 이해 못 하느냐?  
                  이미 마루야마가 우승자란 말이다.  
 임호           알고 있소.  
 이토           그런데?  
 임호           누가 이기고 지든 상관없소.  
                  단지 난! 본때를 보여주고 싶소.  
 이토           본때?  
 임호           그렇소. 주인 허락도 없이 들어와  
                  주인행세를 하는 자에 대한 본때!

이토와 하야시 얼굴이 굳어진다.

임호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먹여주고 보살펴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수탈만 일삼다가 이제 나라까지 팔아먹은  
                  인면수심인 자들에 대한 본때!

이완용과 대신들의 얼굴이 굳어진다.

임호           개 돼지 잡듯 사람을 잘 죽이는 것이  
                  대접인지 아는 부끄러운 자들에 대한 본때!

마루야마 불끈 하며 나서려는데

이토           (손을 들며) 마루야마! 대회는 끝났다.  
                  그렇지 않은가?  
 마루야마       ... 그렇사옵니다.  
 이토           돌아가자.

마루야마 임호를 노려보고는 발길을 돌린다.  
 사람들의 야유를 뒤로 하고 걸던 마루야마  
 사람들 틈에서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자 발길을 멈춘다.

이토           (돌아보며) 마루야마! 안 오고 뭐하는 게야!

보면 우치베가 마루야마를 응시하고 있다.

우치베            가서 싸워라.  
마루야마         ...  
이토               마루야마!  
마루야마         (우치베를 지나쳐 가려는데..)  
우치베            유키가 죽기 전 한 말이있다.  
마루야마         !!  
우치베            우리 형은... 무사다. 진정한...  
                    전쟁터에 보낸걸 원망하지 않는다고 했다.  
                    유키는 널 용서했어. 가서 땃땃이 사무라이답게 싸워!  
                    평생 나처럼 도망다니고 싶지 않다면!  
이토               마루야마! 명령이다!!

마루야마 돌아서서 임호에게 걸어간다.

## 106. 동. 마지막 대접

임호와 마루야마의 팽팽한 긴장감.  
사람들 숨을 죽이고... 이토와 덕해도 눈을 떼지 못한다.  
마루야마 틈을 노리다 임호의 옷깃을 잡는데 박치기로 응수하는 임호.  
뒤로 주춤거리며 물러서면, 마루야마의 이마에 피가 흐른다.  
임호 씨익 웃으며 윗옷을 벗어제긴다. 마루야마 당황한다.  
잡기가 주무기인 마루야마 임호의 발질에 점점 뒤로 밀린다.  
이를 보고 있던 이토의 미간이 찡그려진다.  
마루야마의 가슴팍을 내지르려는가 싶더니 이내  
그의 허벅지를 밟고 어깨를 밟고 올라타더니 등짝을 내갈긴다.  
앞으로 휘청거리는 마루야마. 돌아서면 임호 순신간에 봉 날으며  
무릎팍으로 아구창을 날린다. 피범벅이 되어 쓰러지는 마루야마.  
비실거리며 일어서면 임호가 틈을 주지 않고 달려와 이크~! 하며 날아오른다.  
그러나 바로 목을 낚아채이며 우치베에게 당한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장내 술렁이고... 마루야마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진다.  
점점 목을 죄여오는 마루야마의 악력!  
발버둥 치지만 유도왕 답게 임호를 거머쥔 손이 꿈적도 않는다.  
점점 숨을 몰아시는 임호.. 덕구의 얼굴에 안타까움이...  
덕해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난다.

도저히 못 보겠는지 고개를 돌리는데... 그때 와! 하는 군중들의 탄성!  
임호 빙글 돌아 허공에서 물구나무를 서는 가 싶더니 임호의 쌍발이  
마루야마의 면상에 작렬한다. 모든 체중을 실어 가한 타격인지  
마루야마 휘청거리며 몇 발자국 뒤로 물러선다.  
임호 숨을 고르더니 이토를 노려보고는 그대로 달려가  
에크~!! 공중에서 마루야마의 턱주가리를 날려버린다.

정적이 흐른다... 사람들 믿기지 않는 듯...  
덕구가 임호에게 달려가 안긴다.  
환호성~! 사람들 만세를 부르며 임호에게 달려간다.  
광대들 쾅파리 울려퍼지고 박무경 전선출 임호 무등을 태우며 만세!!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덕혜 눈물을 닦아내며 감격에 젖는다.  
이토 눈을 부라리며 하야시 공사에게 눈짓을 준다.  
하야시 강제로 덕혜를 마차에 태우며 군인들에게 신호를 준다.  
군인들 총구를 앞세우고 사람들을 내몬다. 부관하나가 착검한 총구를  
임호에게 조준한다. 조준쇠에 들어오는 임호의 머리. 당겨지는 방아쇠.  
탕! 임호 돌아보면 총을 든 부관 쓰러진다. 각시탈이 들고 있는 육혈포 총구에서  
김이 모락모락.. 탈을 벗으면 김구다. 김구 동료들에게 고개짓을 하면  
모두 육혈포를 꺼내 이완용과 대신들을 겨눈다.

김구                    을사오적이 저기 있다!  
                         나라를 팔아먹은 저들을 잡아라!

여기저기서 터지는 총소리!  
군인들과 도망가는 인파들과 함께 섞여 아수라장.  
난장판속에 마차 떠나고... 창가로 막아서는 이토를  
밀어내며 고개를 내미는 덕혜. 임호 달려간다.  
마차 속력을 내고.. 임호 마치 호랑이처럼 마구 뛰어간다.  
군인들 막아서며 황급하게 총을 쏘는데 피하며 그들 속으로  
난타해들어간다. 쓰러지는 군인들.  
다시 이를 악물며 뛰기 시작하는 임호.  
어느 새 그의 윗저고리에서 피가 베어나온다. 총을 맞은 듯.  
창밖으로 손을 내민 덕혜와 임호의 손이 닿을락 말락...  
그러나 마차 속력을 내고... 임호의 상처가 깊다.  
달리던 그의 발걸음이 점점 느려지고.. 눈발이 날리며.. 마차는 멀어진다.  
그렇게 시야에서 멀어지는 마차. 임호 폴짝 무릎 꿇는다.  
눈보라가 몰아치고 임호의 울부짖음만이...

화면 서서히 암전된다.

## 에필로그

### 107. 푸줏간 골목- 밤

꼬맹이 하나가 고개를 빠꼼히 내민다.

썰렁한 시장통 모습.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후 달려가면  
덕구와 아이들 구석에 앉아 있다.

아이1            애기 좀 해 봐라. 죽었나?

덕구            (고개 저으며) 모른다.

아이2            혹시... 내뺨거 아니가?

덕구            (매섭게 쏘아본다)

아이2            인왕산 호랑이도 이젠 이빨 다 빠졌다.

덕구 아이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드는데.. 그 손을 잡는 굵은 손.  
돌아보면 빙그레 웃고 있는 임호.

### 108. 감투바위

함박눈이 내리는 감투바위. 서로 마주 보고 있는 임호와 덕구.  
덕구 임호가 맨 붓짐을 보고 고개를 떨군다.

덕구            절대 잡히면 안 돼요.

임호            도망가는 게 아니라... 잡으러 가는거다.  
아저씨... 인왕산 호랑이니까.

임호 빙그레 웃자 덕구의 눈빛이 빛난다.

임호            마지막 대접이 될 거 같은데.

두 사람의 따뜻한 시선이 교차한다.

서로의 무릎을 대며 대접 자세로 들어가는 두 사람.

둘 웃고 있지만 진짜 싸움을 준비하듯 주먹을 말아쥐다.

두 사람이 댄 무릎으로 쭈인해 들어가고.. 눈발이 흩날리고...

경쾌한 사운드 소리와 함께 맞닿은 임호의 무릎 도복이 누더기로 전환된다.  
내리던 눈발도 빗꽃으로 전환되며 카메라 빠르게 빠지면 우치베와 대접을  
벌이고 있는 임호. 빗꽃이 흩날리는 동경의 한 복판.  
기모노 입은 여인네들과 일본인들이 둘의 대결을 구경하고 있고,  
일본 군인들을 막아선 우치베의 부하 사무라이들. 이미 임호에게 개박살난 일본  
무인들도 보이고.. 무수한 대결을 넘어서 이곳까지 온 듯 임호의 도복은 누더기가  
되어 있다. 둘의 거친 숨소리. 잠시의 정적. 대지를 뒤흔들 듯 거센 기합소리와  
함께 돌격해 들어가는 임호의 얼굴에서 정지되며 표효하는 인왕산 호랑이 얼굴로  
바뀌며 엔딩 크레딧 올라간다.

<끝>